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계 탐색과 미래교육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일고(一考)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소장 임재일

1. 들어가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 인구학적 변동, 기후위기, 노동시장 양극화 및 불평등과 혐오 등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새로운 국면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

이에 교육도 예외일 수 없었다. 코로나19는 전면적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보여 주면서 이전과 다른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지식을 넘어 ‘시간과 공간’의 변수를 달리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청되었다.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지에 대한 교육문법 체계가 바뀐 것이다. 이처럼 교육대전환의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은 어떤 것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교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아젠더와 지향점들이 어떠한지 한 번 짚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 중 교육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개념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꼽을 수 있다. 그간 20년 넘게 이 두 지속가능성 관련 개념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맞서 교육을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인 현재에도 이러한 두 개념의 본질과 특성이 학교 현장 교육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 팬데믹 선언은 전 세계의 삶의 질서를 바꾸게 만들었고, 학교 현장은 코로나19 이전과 극명하게 달리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개선 및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리해 보는 것은 분명 유익할 것이다. 한편, 이 두 개념 간의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 두 개념의 용어가 유사하기도 하고, 교육 현장 적용 시, 리터러시 부족으로 동일 또는 유사 개념으로 바라보고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필히 두 개념이 태동하게 된 태생적 원인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두 개념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추적하여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에 대해 탐색하고, 두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여 미래교육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만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와 실천자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터러시를 높일 기회가 될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교육대전환을 요청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실현가능성 높은 지속가능한 교육이 학교 현장 교육과정에 안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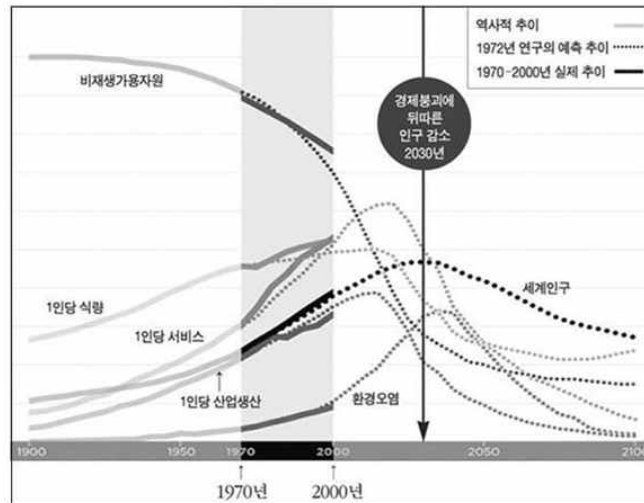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와 혼용)은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며(문지영, 양채원, 2022),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구축, 환경의 보존, 경제적 생존력 측면에서 보다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약 30여 년에 걸쳐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합의한 개념이다(조우진, 2012).

이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출발한다. 국제기구인 UN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킨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UNCHE), 일명 ‘스톡홀름 회의’라고 지칭되는 이 회의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계시킨 최초의 국제회의이다. 이전 1962년 Rachel L. Carson의 「침묵의 봄(The Silent Spring)」으로 시작하여, 당시 1972년은 Club of Rome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¹⁾를 통해 경제발전으로부터 야기하는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들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해였다.

이후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nternational Union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 발전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을 이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이 세계보전전략은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 자원의 수탁자 임무 수행을 위해서 개

1) 1972년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여 ‘탈성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다. 이 보고서에는 1900년부터 1970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970년부터 2100년까지의 인구, 식량, 산업생산, 오염 그리고 재생할 수 없는 에너지의 추이를 예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 주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게 되면 앞으로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2008년, 호주 연방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 예측 데이터를 비교 검증한 결과 40년 전의 예측이 거의 일치했다는 것을 밝혔으며, 불행하게도 앞으로의 추세 역시 과거의 예측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92년 「성장의 한계, 그 이후」라는 책이 나왔고, 30주년 개정판이 한국에서 2016년 「성장의 한계」로 번안되어 나왔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에 최신 버전이 나온 상태이다.

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 고 제안하면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김보명 외, 2020).



[그림 1] 성장의 한계와 30년 후 현실의 비교

1982년 케냐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회의에서 ‘나이로비 선언’이 채택되고, 이 회의에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는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라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화두를 제기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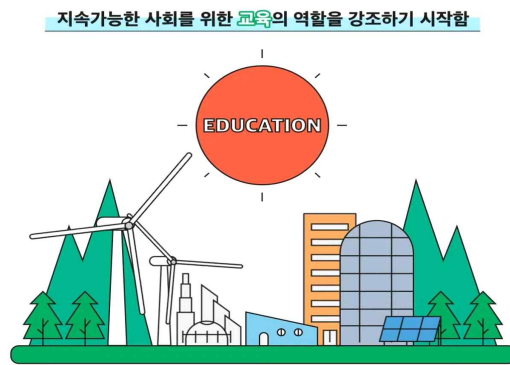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 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때가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직후였는데,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³⁾’이라는 개념정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상에 천명하게 되었다(WCED, 1987: 43).

2) <http://kicsd.re.kr/21>.

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p.43.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적 이행 수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후 유네스코에서는 ESD와 관련된 활동을 주도하였다. 200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cade of ESD, 2005-2014)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계획은 2015년 ESD 국제실천프로그램(Gloval Action Programme, GAP, 2015-2019)으로 이행되었으며, 유네스코는 202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로드맵(ESD for 2030, 2020-2030)’을 발간하였다. 이후 2021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1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사회에서, 특히 ‘교육’이 변화하여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문지영, 양채원, 2022).



[그림 2]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강조

※ 출처 : <https://ncsd.go.kr>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이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범교과 주요 주제로 반영됨에 따라 통합사회 과목의 대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삶’이 선정되기도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교육부, 2018).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용어가 총론 시안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에 논의되면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다(임재일, 2022).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프로그램들이 학교 급별, 교과별, 주제별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 학계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와 혼용)는 사람, 지구환경,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써 사람, 지구, 번영, 평화 그리고 협력에 관한 범지구적 행동을 촉구하는 목표이다. SDGs는 1987년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전 세계에 호소 한 것과,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114개국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 리우 회의를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출발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리우 회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회의였 는데, 환경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리우 선언 문’ 과 ‘의제 21’ 이 채택되게 된다.

세부적 실행 프로그램인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프 로그램을 40장에 나누어 담고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욕구에 잘 대응하는 사회’ 가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였 다(한택환, 1994). 이런 리우 회의는 제도적 수준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2000년 9월 제55차 유엔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김보명 외, 2020; 임현묵, 박환보, 2018).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15년까지 빈곤 감소, 보건, 보편 교육의 개선, 환경보 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여덟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SWWD)는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 온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이행과제를 구체화하여, 일명 ‘요하네스버그 선언’ 이라 불린다(김보명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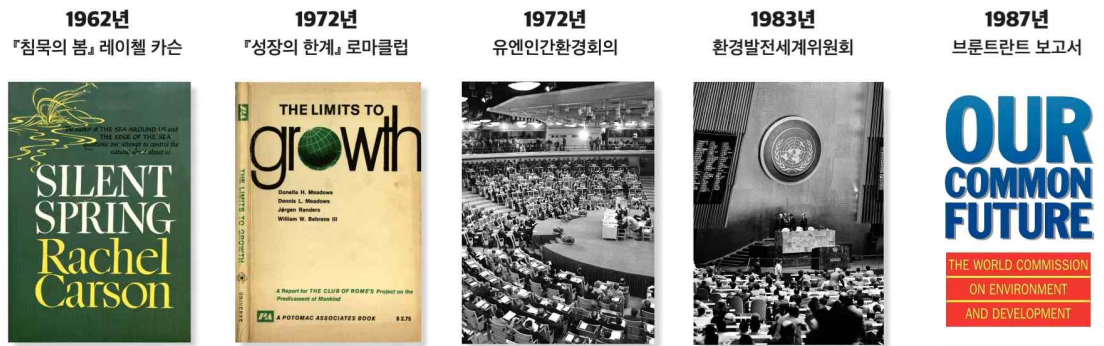
201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는 ‘리우+20 정상회의’ 라고 알려진 유엔지 속가능발전회의(UNCSD)가 다시 리우에서 개최되어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라는 제목의 선언을 채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당시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 구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 강조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생경제(Green Economy)’ 의제 를 채택하고,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잇는 지 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 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일명,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라고 불리는 이 지속가능발 전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ing no one behind)’ 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이라는 5개 영역(5p)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 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던 빈곤,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강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 발전, 경제 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점에서 차별화된다고(김보명 외, 2020). 2030년까지 달

성해야 할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인류가 합의한 생태적 사유에 대한 글로벌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⁴⁾



[그림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

4. ESD와 SDGs의 의의와 비판



※ 출처 : <https://ncsd.go.kr>

지금까지 ESD와 SDGs의 형성과정과 출현 배경을 살펴보았듯이, 이 둘의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비롯되었음을 포착할 수 있다. 당시 전 세계가 성장해 온 ‘발전’의 역사가 이대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라는 성찰과 반성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 보고자 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으로 지향했던 ‘발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탄생했으며, 그 대안 마련을 위해 윤리적 성찰의 의미가 담긴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형용사가 등장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자연계, 사회계, 경제계를 전체론적 관계성 속에서 이

4) <https://namu.wiki/w/%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

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렌즈(조우진, 2012)’ 나아가 생태학적 관점을 태동케 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ESD는 사회 변화에서 경제개발이라는 한계를 국제사회가 부각시켜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생성’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ESD는 자연과 환경 등 ‘생태에 대한 사유’ 를 가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가 있다. 이러한 함의는 경제개발이라는 ‘필요’ 의 욕구와 ‘한계’ 의 욕구가 충돌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대안을 통해 모든 인류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케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ESD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거시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ESD 개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⁵⁾ 포괄성을 지닌 개념의 특성상 정치적 논리 혹은 주류에 의해서 오도되거나 경제적 성장(Economic Growth)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월드워치연구소의 엔겔만 대표(Engelman, 2013: 재인용)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더 나은 것에서부터 근사한 것에 이르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이라는 단어를 귀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과잉 시대’ 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과잉 현상이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속가능’ 이라는 형용사가 본래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는 환경에 좀 더 유익한’ 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어서 쓰인다는 비판은 다소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즉, 이것은 지속가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취지가 왜곡되어 환경에 더 밀접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침으로 풀이된다(이선경, 2018).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생태교육을 환경교육으로 동일시 하는 일부 현장교사의 인식이 이를 방증해 준다. 이처럼 ESD는 역사적 의의와 교육적 함의 이면에 개념의 모호성, 다중성, 다양한 이해와 복수적 해석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받아 왔다.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성과와 과제(이선경, 2014) 발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소통과 교육의 양적인 면은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한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특히, 교사 연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교육프로그램은 그간의 노력의 성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교육계를 넘어 ‘모든 영역’ 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 학습을 재정향하고 이를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함께 협력하여 교육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실천(action)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이행 계획을 제언하고 있다.

5) <https://namu.wiki/w/%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

한편, SDGs에 대한 의의와 한계도 탐색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는 리우 선언문과 의제21에 영향을 주어 2000년 9월 제55차 유엔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한 것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2015년에 나온 MDGs의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8개 목표(①절대빈곤과 기아 종식, ②초등교육 보편화, ③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 ④아동 사망률 감소, ⑤모성보건 향상,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⑦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⑧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하는 빈곤과 질병 퇴치, 모자 보건 향상, 교육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8가지의 목표 선언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 대상화시켜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언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다르게 타겟팅 전략이 잘 반영되어 교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의식을 더 선명하게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반면, MDGs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 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지원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평이 대세이다(임현묵, 박환보, 2018). 이에 MDGs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곤 한다. 일부 목표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다른 목표에서는 부분적이거나 미약한 성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그런 성과조차도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여성이나 소외 계층, 농촌지역 등은 거리가 매우 멀었다고 한다. 결국, MDGs는 부분적인 성과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 계층 간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체제로 SDGs는 미완의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2015년 이후 발전목표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춘 목표로 볼 수 있다. MDGs가 정부 주도의 빈곤 퇴치, 위생 및 보건 개선, 보편 교육 달성 등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의 삶 개선’에 강조점이 있다면, SDGs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 환경, 경제 분야의 발전’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허학영, 2017. 재인용). 즉, 일부 부분 적용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형평성의 전략이 SDGs에 반영되었고, 지속가능성을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에너지와 천연자원, 제도와 거버넌스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류 공통의 목표가 되기 위해 보편성 확보가 강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임현묵, 박환보,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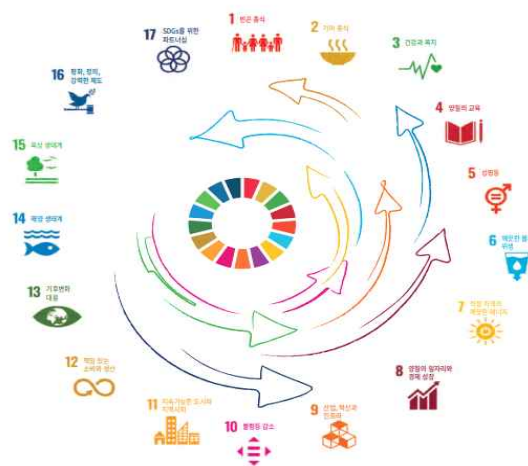
이 중 SDG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 SDGs 전체에서 강조되는 기본 정신인 ‘포용성과 공평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질의 교육이란, 그동안 교육의 양적 확대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질이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반성에서 새롭게 강조한 것이다. 이 SDG4의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교육’이 핵심적임을 말해 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평생학습

기회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4. ESD와 SDGs의 관계 : 상호보완성

이선경(2021)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목표 4 ‘양질의 교육’ 안에 설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다른 16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행 수단으로 또는 여러 목표 영역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ESD와 SDGs의 양자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19년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SD for 2030)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이란,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ESD 이행을 위한 국제 운영 체계이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17개 SDGs에 기여하며,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GAP, 2015-2019)’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 SDGs 달성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교육 2030)’라는 체계를 채택한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SDGs 달성에 대한 교육의 기여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을 뒷받침하는 목적과 가치를 검토하고 모든 수준의 교육과 학습을 재정향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모든 활동에서 교육과 학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유네스코는 SDGs 달성을 위한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 기간 동안 ESD를 가속화시키는 전략을 담아 국제 운영 체계를 발표한 것이다.



[그림 5] 지속가능발전교육: SDGs 달성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의 모습
※ 출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ESD를 강화하고 17개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설명해 주는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1: 17).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야심찬 지속가능발전교육(SDGs), 특히 세부목표 4.7의 핵심 요소로, DESD(2005-2014)와 GAP(2015-2019)의 비전에 기반하고 있다.

ESD는 모든 17개 SDGs에 기여하지만, 특히 ESD가 뚜렷하게 자리해 있는 SDG 4번 목표에 명시된 국제 교육 의제와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ESD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학습의 인지·사회·정서·행동적 차원에서의 ESD의 범분야적 역량으로 인해 모든 영역의 교육과 관련되게 된다.

공감, 연대 및 실천과 관련된 역량을 ESD가 특별히 강조하는 점은, 교육이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의 집단적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미래를 구축하고, SDG 4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국제 교육 의제가 주로 접근성과 학습성과 측면에서 측정된 질에만 절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내용 및 기여를 점차 더 강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ESD는 SDG 4번 목표 및 여타 모든 SDGs와 연계된다.

이것은 17 SDGs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시사한 것이며,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이 그러한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6] 교육을 통해 17 SDGs를 실현하겠다는 ESD for 2030

※ 출처 : <https://ncsd.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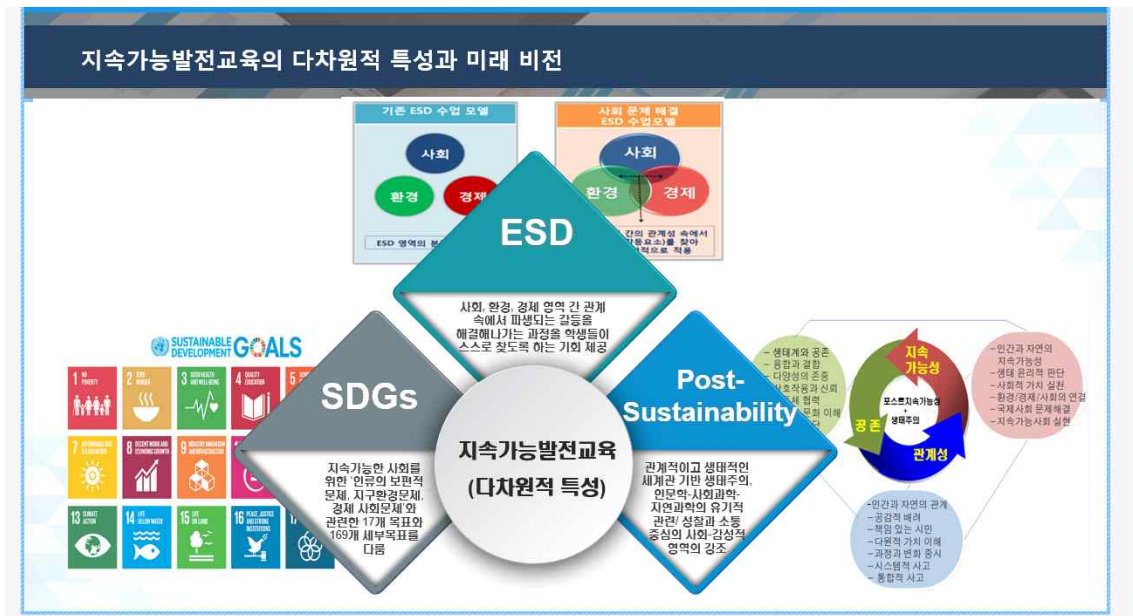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는 ESD와 SDGs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SD의 모호성, 추상성, 다중성, 복수적 이해 및 현실성 부족 등의 비판은 SDGs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실현성을 가능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즉, 명제적, 선언적, 추상적인 ESD의 한계를 SDGs가 구체성, 현장성, 실천가능성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반면, SDGs는 17개의 목표가 분절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각 이슈에 대해 단편적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분절적인 사일로 효과(silo effect)의 한계를 지적받는다. 또한, 이것은 각 행위자나 프로그램은 해당된 하나의 주제나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김보명 외, 2020). 각 목표들 사이의 연계와 통합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SDGs의 또 하나의 쟁점은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충분히 고안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목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02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교육’을 통해 분절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ESD가 역으로 SDGs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보여 주게 된다.

한편, 2000년 9월 제55차 유엔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시작될 초기에 development를 ‘개발’로 번역한 것에 주목한다면, 2005년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cade of ESD, 2005-2014)이 추진되면서 development가 개발이 아닌 ‘발전’으로 다르게 해석하여 쓰이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2014년 ESD 10년 계획이 끝나고 2015년부터 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 2015-2019)으로 이행되는 시점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하였다. MDGs가 SDGs로 바뀌면서 development의 ‘개발’이 ‘발전’으로 역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MDGs가 SDGs로 전환되는 사이에 ESD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SD 생성 당시 사회 발전에서 개발 중심에 대한 윤리적 성찰은 필연적인 시대적 요청이었다. 따라서 ESD가 보여 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의와 성과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이 곧 발전이라는 반성’의 의미가 development에 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조우진, 2012). 즉, ESD는 지속가능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 목표를 발전 목표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모색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ESD와 SDGs는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변화를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단점을 보완해 가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공진화(co-evolution)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SD와 SDGs를 아울러서 다차원적인 특성으로 미래지향적인

Post-Sustainability 모습을 제안한 연구는 이런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용어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5. (미래교육 진입 길목에서) ESD와 SDGs의 한계 : 현장 수용성

가. 미래교육 특징에 따른 두 가지 키워드

미래사회 변화는 교육대전환이라는 구호 아래에 새로운 미래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미래사회는 AI, Chat GPT 등의 과학기술 발전, 인구학적 변동, MZ세대 등장, 지속불가능한 기후위기 및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사회 전반의 변곡점을 보여 주면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라는 큰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는 학교지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복잡성 등으로 ‘상황맥락적인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청한다(정영근 외, 2022). 즉, 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역량’ 함양과 동시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 대응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지식을 ‘교수’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을 ‘구성’ 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생성하는 ‘학생 주도’의 지식 구성활동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학교교육은 학생으로부터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학교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임재일, 2023).

지금까지의 학교는 교수·학습의 독립적인 공간을 독보적으로 차지해 왔다. 코로나19 이전까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며, 배움을 연찬하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장소였던 것이다. 하지만, 생태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장소와 사람, 사물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 즉,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학습해야 하고, 인근 카페나 스터디 룸에서 친구들과, 교사와,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세계 누군가와 연결하여 자신만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학습경험을 구성’ 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학생에게 학습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배움이나 성장 차원에 머물지 않고, 환경과 공동체의 복합적 상호작용 차원에서 ‘개인을 둘러싼 도구나 주체들을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것이든, 또는 다른 도구나 자연 및 동식물(비인간)과 공생하는 것이든 ‘다른 주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가 된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상보적 관계를 맺으며 네트워킹하면서 학교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특성을 보여 준다(양채원, 이강주, 권순형, 2021; 우창빈, 2022).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미래교육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학교지식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면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힘 즉, ‘행위 주체성(agency)’이 요청되며, 그러한 학교지식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과 상생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교육생태계(co-agency)’의 모습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되며, 그것이 바로 ‘삶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삶의 역량을 학습하는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질문과 물음을 통해 학습 요구와 필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임재일, 2022). 이것은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배움의 주체성을 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들이 배우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다(임효진, 이두곤, 2016). 누군가가 배울 내용을 정해 주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배울 지식을 스스로 결정해 삶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정수(精)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장시켜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감응할 수 있는 ‘학습경험의 질과 폭’을 심화시킬 수 있는 미래교육의 교육과정 접근이 필요하다(교육부, 2022). 기존의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는 더 이상 학생 배움 요구 충족이 불가능하다. 정해진 시간표에 정해진 내용을 TV 편성프로그램처럼 차례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획일화된, 경직화된 교육과정에는 미래교육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없다(신나민, 이선희, 2011). 따라서 미래교육에서의 학교지식은 ‘유연한 교육과정 설계 프레임’으로 급변하는 사회와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유연한 교육과정 설계 프레임이란,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배우고 싶은 주제와 방법을 주도적으로 설계·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접근 방식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임재일, 2022; 임재일, 2023).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이다. 지역, 학교의 특성,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앎(knowing)이 삶과 연계되는 실천(doing)을 통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인간상이 될(being) 수 있을 때, 이론적 지식이 실제적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고 가르칠 지에 대한 교육과정 의사결정 권한을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강력한 지식(powerful knowledge)이 된다(소경희, 2021). 이것은 현장 수용도 높은 교육과정일 때, 이론, 담론, 지식, 개념, 명제 등이 실제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자유시간’이 신설된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22).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현장 수용도가 높은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는가?

다. 지식 생성자(전문가), 교육 실천가(교사) 및 지식 습득자들의 동몽이상(同夢異床)!

ESD와 SDGs는 학생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가? 만약 ESD와 SDGs의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이 학생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거라면, 국가, 학교 또는 교사가 결정해서 접근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 것인가? 지속가능성을 가르쳐야 하는 목표가 국가별로 다를 것이고, 한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7개 시도의 지역적 상황이 다르며, 경기도라는 한 지역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한 접근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가? 지식을 생성하고 전달하는 이론가들과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삶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실천가들이 동몽이상(同夢異床, 같은 꿈을 꾸고 있으나 서로 다른 상(위치)에서 연결되지 않음)하고 있다. 즉,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있고, 지속가능성 담론 생성자와 지속가능성 실천가 사이의 간극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현장 수용성’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ESD와 SDGs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교육의 창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과 교사의 행위주체성에서 비롯되며, 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세상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은 지금까지의 담론들을 어느 정도 완결되게 정리해 주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을 앞서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던져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식을 생성하여 만들어가는 여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현장성이 미흡하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르쳐야 할 내용이 상황맥락적으로 변하는 학교지식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가르쳐야 할 대상을 정해서 던져 주는 방식은 최근 학교에서 ‘폭력’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면서 경계한다. 즉,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가 변화해 오면서 교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권이 동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이외에 이와 관련된 학교지식을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이 지속가능성 연구보고서나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때다.

ESD와 SDGs는 학생들의 삶이 삶과 연계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배워야 할 거시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상컨대, 학생의 미시적인 삶에서 독자적이고 특수적이며 상황맥락적인 실제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이 ‘교육’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커다란 성과이자 바람직한 체계이나, 교육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즉, 미래교육에 따른 학교지식의 유연성, 융통성, 가변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최종질문을 던져 본다.

17개 주제 이외의 주제는 없는 것인가? 새로운 주제를 학교 현장에서는 선정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17개 이외의 새로운 주제를 선택한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이후에 제시될 또 다른 새로운 아젠더가 위(지식 생성자, 이론자, 전문가)에서 탑다운 될 때까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은 기다려야 하는가? 2023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으로 배운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현 10세)이 10년 후인 2033년에 배운 지식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임재일, 2021). 정우탁(2021)에 따르면, 2030년대가 되면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삶 속에 그만큼 문화와 예술이 먼저 태동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우주공학 분야도 현재 SDGs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023년 뜨겁게 달구고 있는 Chat GPT는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Post-SDGs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정우탁, 2021: 204).

6. 나가며

미래(未來)는 ‘아직 오지 않음’이라는 한자 어원처럼 불확실한 사회를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은 불확실한 미래에 적응하며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지식은 상황맥락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지식은 학교 현장의 실제적 지식이어야 한다. 실제적 지식은 학생의 삶과 삶을 연결하여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지식으로 전이된다. 이것을 OECD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행위주체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2). 즉, 학생의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교사의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그리고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주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김경애 외, 2018).

전반부에 우리는 발전의 필요와 한계를 해결하는 용어가 지속가능성이고, 이를 ESD와 SDGs의 양자 관계를 상호보완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 로드맵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아젠더가 학교 현장에 오면 신통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지식과 담론을 형성하여 전달하는 자와 다르게, 그 지식을 사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천가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인류에게 새롭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적 수고(?)가 있기 마련인데, ESD와 SDGs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ESD와 SDGs는 교육과정학적으로 볼 때, 현장 수용성이 아직 탑재되어 있지 않은 정해진 지식과 정해진 방식의 담론으로 읽혀졌다! 미래교육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하는 ‘따라가는 담론’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예상, 예측, 예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며,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목표와 콘텐츠가 새롭게 생성되면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엮히고 설키면서 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이다(임재일, 2021). 하지만, 2000년 MDGs, 2005년 ESD, 2015년 GAP, 2016년 SDGs, 2020년 ESD for 2030 등의 ‘일선형적 지속가능형’ 교육으로 언제까지 다양한 목표와 교육 콘텐츠를 제시하고 배우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이러한 방식이 정말 지속가능 할지 의문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쫓아가는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포용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주체성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이 앞으로의 시대가 요청하는 지속가능성이 아니겠는가? 발전(development)에 대한 필요의 욕구와 한계의 욕구를 반추하면서 나타난 지속가능성은 이제 미래교육 관점에서 ‘누가’ 그 주체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라는 존재론적 물음에 답해 주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있는가? 모든 주체들에게 동등한 권한을 임파워먼트하여 민주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동하고 있는가? 미래교육에서 교육과정은 이제 ‘누가’를 포함하여,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는 학문이 되었고, 코로나19 이후 언제, 어디서까지 고려해야 하는 확장된 학문이 되었다. 이상 지금까지의 논의와 고민들은 앞으로 ESD와 SDGs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Post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되길 기대하며, 미래교육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배 위에 Post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설계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이상의 논의는 두 개념의 관계를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목표라는 역사적 사건 발

생의 흐름 속에서 두 관계를 비추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동시에 한계를 지닌다. 두 아젠더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연구나 다양한 실제적 연구물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일면의 관계를 조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자들과의 토의토론과 콘퍼런스 참여자들의 소통을 통하여 보다 긴밀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탐색해 보는 연구가 후속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22). 의미 있는 학습경험 다양화로 유연한 교육과정 설계하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 정책과.
- 교육부(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 교육부(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 김경애, 류방란, 김지하, 김진희, 박성호, 이명진(2018).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김보명, 박순용, 안현효, 이동기, 이선경, 임현묵, 장은주, 조대훈, 최현, 한건수, 한승희(2020).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문지영, 양채원(2022).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아시아교육연구, 23(3), 557-585.
- 소경희(2021). 교육과정 지식 논쟁: Michael Young의 ‘강력한 지식’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과정연구, 38(4), 35-60.
- 신나민, 이선희(2011). 지속가능한 학교 논의의 국내외 동향: 공간-환경적, 교육과정적, 통합적 접근. 한국교육, 38(4), 189-215.
- 양채원, 이강주, 권순형(2021). 학습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의 미래교육 혁신. 한국교육, 48(1), 31-59.
- 우창빈(202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2(2), 85-116.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ESD for 20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선경(2014).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성과와 과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 대회와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 발표논문집(2014.12), 3-12.
- 이선경(2018). 학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융복합교육의 통합 전략 탐색 연구. 환경교육, 31(2), 83-99.
- 이선경(2021). 지속가능발전교육, 학교 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광장 2021 여름호.
- 임재일(2021). 교육과정 본위(本位)에 대한 차기 국가교육과정 디자인: 삼간(三間)으

로 살펴본 국가교육과정. 좋은교사운동 연속 정책토론회 발제 2(2021.6.28.).

임재일(2022).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발표 토론문. 국가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청회(2022.10.8).

임재일(2023).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발제 1). 강
민정의원실(2023.1.31.).

임재일, 박은영, 박주훈, 김택헌(2022). 학교자율과정 적용 양상에 따른 교육과정 정
책 방향 논의 :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3), 75-104.

임현묵, 박환보(2018).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
표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임효진, 이두곤(2016). 교육의 내재적 가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적 고
찰과 발전 방향 연구. 환경교육, 29(4), 384-399.

정영근, 이미숙, 민용성, 권영락, 이근호, 조상식, 곽영순, 임완철, 윤초희(2022).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에 따른 학교지식의 구상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KICE 연구리포트 2021.

정우탁(2021). 세계시민학 총서 2. 세계시민교육과 SDGs. 주류성.

정윤리, 임재일(2021).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논의를 통한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고: 교사교육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49(4), 5-33.

조우진(2012). 지속가능발전교육: ‘발전’ 비판과 대안을 위한 렌즈. 국제이해교육
연구, 7(1), 39-69.

한택환(1994).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KIEP 94-04.

허학영(201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보호지역.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양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68-88.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웹검색>

<https://namu.wiki/w/%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

<http://kicsd.re.kr/21>.

시작하는 이야기

2023 봄, 북부교육지원청



지구의 날(4. 22.) + 어린이날(5. 5.)

어린이를 위한 지구, 앞으로의 100년 지켜주기 프로젝트

배우고 '지구의 날' 이 만들어진 배경과 지구의 건강 상태

느끼고 기후위기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행하고 '앞으로의 100년 지켜주기' 기후행동 실천

나누고 기후행동 실천 과정 및 결과 공유

말하고 '어린이의 지구' 약속 선언문 발표 및 전달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약속합니다

-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오늘 우리의 불편함으로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지켜주겠습니다.
-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가정에서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북부 교육가족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3 말대식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수현

순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2020 ~ 2024)

2019년



2020년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24)

- 목적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양성
- 생태전환 실현을 위한 학교 안팎의 상호학습과 협력 시스템 구축

* '생태시민' :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생태환경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24)

- 추진 방향 및 핵심 가치
 - 통합적 접근: 학문적 통합, 지식-태도-행동의 통합, 학교 안팎의 통합
 - 혁신적 접근: 생태전환교육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혁신적 재구조화
 - 실천적 접근: 법제화 및 조직구성
 - 구성적 접근: 연도별 목표와 로드맵 방식, 체계적 평가, 모니터링
 - 협력적 접근: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내실화 및 활성화
 - 세계시민적 접근: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실천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2021, 2022, 202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2023)

- 비전: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 목표: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 추진 영역
 -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2023)

• 핵심 가치

- 통합: 앎과 삶과 함을 잇는 통합으로
- 변혁: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변혁으로
- 실천: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 연대: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연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2023)

• 추진 전략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
(2023)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2023)

- 비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 목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삶의 전환을 주도하는 생태시민 육성
- 추진 영역
 - 생태전환 프로젝트 중심 학교 교육과정 전환
 - 생태전환 프로젝트 실천 역량 제고
 - 학생 중심 생태전환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2023)

- 생태전환 프로젝트 중심 학교 교육과정 전환
 - 교육과정 연계 학교안팎 생태전환 프로젝트 운영 지원
 - : 4월 지구의 날, 6월 환경의 날, 9월 푸른 하늘의 날 등
 - 조직문화 개선 생태전환 프로젝트 운영
 - : 5분 생태전환교육, 3無(종이컵, 나무젓가락, 핸드타올) 실천 운동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2023)

• 생태전환 프로젝트 실천 역량 제고

-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 수시 온라인 설명회, 연수, 365 네트워크 연계 워크숍

- 생태전환교육 지원단 운영

- 자료 제작 및 보급

: '북부 생태전환 이야기(가칭)' 한 쪽 신문 제작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2023)

- 학생 중심 생태전환 프로젝트 지원 네트워크 구축
 - 학생 및 교사 기후행동 365 조직 및 운영
 - : 사전 OT, 발대식, 월별 워크숍, 가족캠프 등
 -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 : 업무협약 체결, 협력 프로젝트 운영, 가족캠프 협력 운영 등
 - 북부교육시스템 생태적 전환
 - : 북부 2국8과 업무 관련 생태전환 및 탄소중립 실천

지속발전가능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출처: <https://esd.unesco.or.kr/>

-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 상호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과제를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 손실, 빈곤, 불평등
- 풀어가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
- 의 통합적 요소이자 모든 SDGs에 직접 기여

-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프로그램
- 중점: SDGs 달성에 교육이 중추적으로 기여하는 것
- 5개 우선 실천 영역
 - : 정책 개선, 학습 환경 변화, 교육자 역량 개발,
청년의 권한부여와 참여, 지역차원의 실천 가속화

지속가능발전교육 '스밈'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24)

- 목적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양성

- 생태전환 실현을 위한 학교 안팎의 **상호학습과 협력** 시스템 구축

- * '생태시민' :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생태환경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24)

- 추진 방향 및 핵심 가치
 - 통합적 접근: 학문적 통합, **지식-태도-행동의 통합**, **학교 안팎의 통합**
 - 혁신적 접근: 생태전환교육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혁신적 재구조화
 - 실천적 접근: 법제화 및 조직구성
 - 구성적 접근: 연도별 목표와 로드맵 방식, 체계적 평가, 모니터링
 - 협력적 접근: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내실화 및 활성화
 - 세계시민적 접근: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실천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2023)

- 비전: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 목표: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
- 추진 영역
 -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2023)

• 핵심 가치

- 통합: **앎과 삶과 함을** 잇는 통합으로
- 변혁: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변혁으로
- 실천: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 연대: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연대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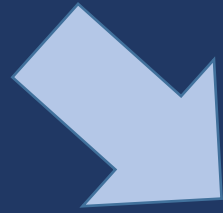
- 비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 목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삶의 전환을 주도하는 생태시민 육성
- 추진 영역
 - 생태전환 **프로젝트 중심 학교 교육과정** 전환
 - 생태전환 프로젝트 **실천 역량 제고**
 - 학생 중심 생태전환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2023)



생태전환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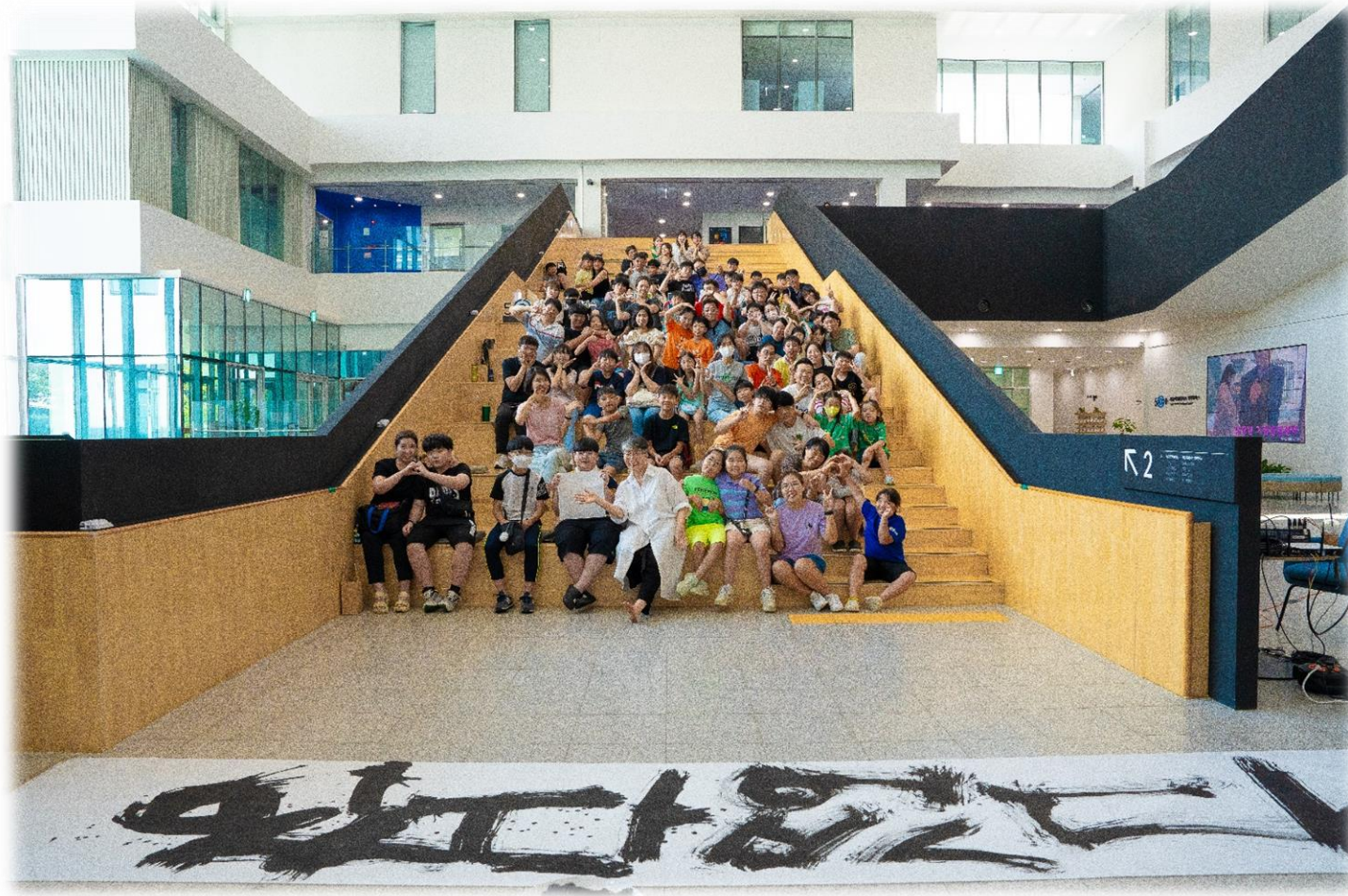
이어지는 이야기

2023 초여름 북부교육지원청 & 도봉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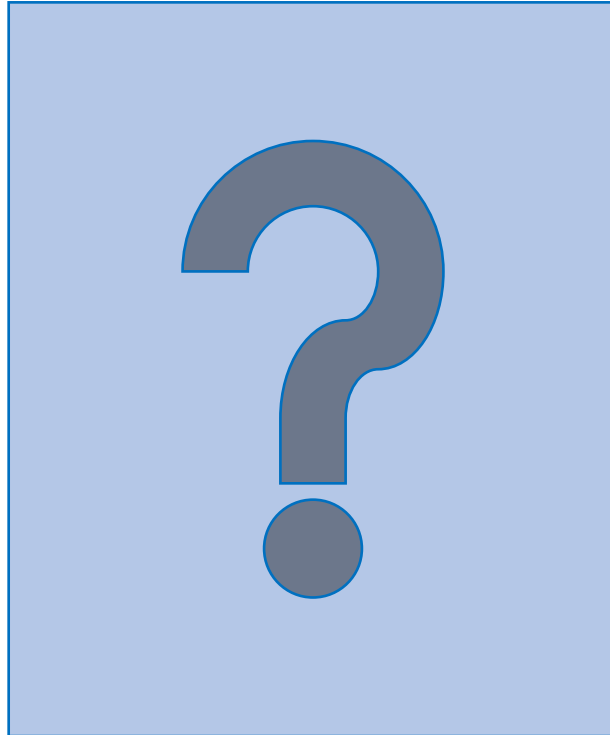
'생태전환교육이 바꾸는 일상, 생태시민이 지키는 미래' 프로젝트

2023. 늦여름 북부 초 4~6학년 학생 및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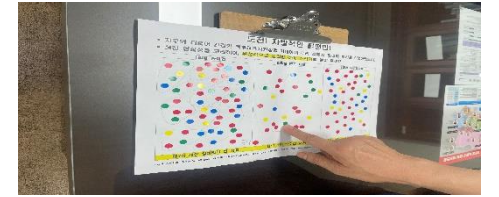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가족 캠프

2023 가을,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프로젝트



생태전환교육 → **생태시민 육성** ← 지속가능발전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5분 생태전환교육 + 월별 기후행동 실천 = 9월 이후 3無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스민 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교육에 스민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시민으로 손 잡은 모습을 그리며

- -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SDGs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SDGs’



최윤경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Table of Contents

- 1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역사
History of Incheon GCED
- 2 ESD & SDGs 인천에서 만나다
ESD & SDGs in Incheon
- 3 ESD & SDGs & 동아시아
ESD & SDGs & East Asia
- 4 ESD & SDGs & 인천형 GCED
ESD & SDGs & Incheon GCED
- 5 ESD와 SDGs 담당부서 분화
ESD & SDGs Dealing Separate
- 6 질의응답
Q&A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역사

개인, 지역, 국가, 세계
인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변천

2015~현재

인천형 세계시민교육(2023~)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필요

03

동아시아시민교육(2021~2022)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과 중요성 확대 및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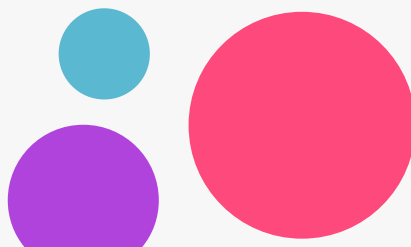
02

세계시민교육 (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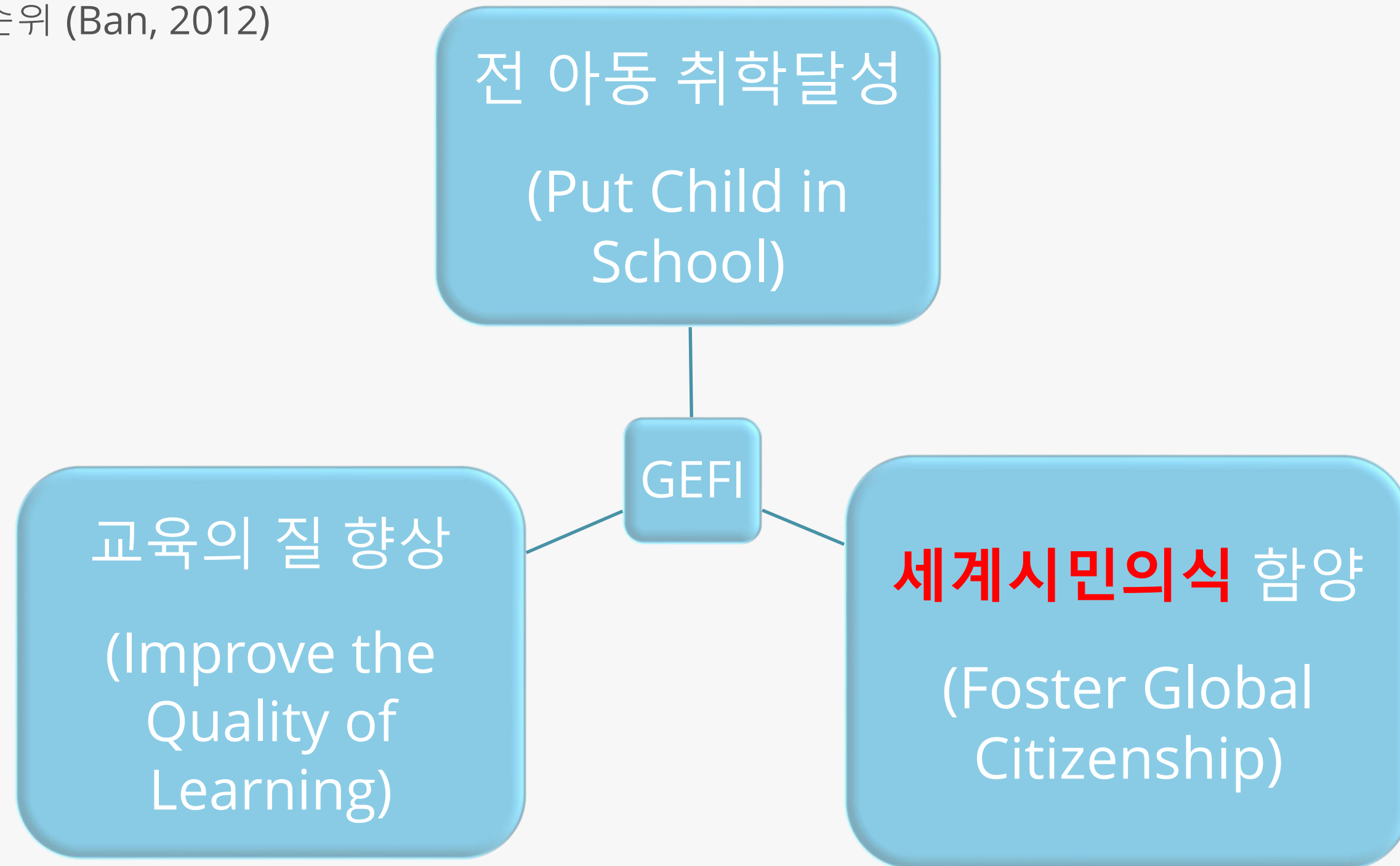
세계화의 전개와 함께 탈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 증가

01

-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 불명확한 개념 혼재
- 새로 생겨난 개념 아닌 기존의 흐름과 연결되는 포괄적 개념
-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역동적 개념으로 상황에 따른 강조점 확인 요구



3대 우선순위 (Ban, 2012)



- 2012년 제67차 UN 총회
- 반기문 사무총장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EFI)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 출발’**

국경을 초월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토대로
인류 보편 가치 및 지구촌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협력, 존중, 책임의
자세를 보이는 시민

세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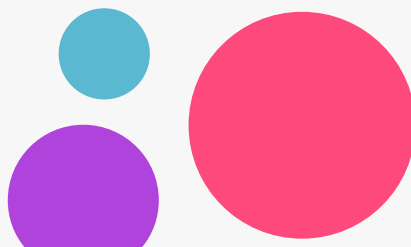
동아시아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 (EFA)

- ① 영유아 보육과 교육
- ② 초등교육 보편화
- ③ 청소년과 성인학습요구 충족
- ④ 성인문해
- ⑤ 교육의 양성평등
- ⑥ 교육의 질 향상

- 2015년 대한민국 인천 세계교육포럼
 - 교육좌표: EFA(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제시



2015 세계교육포럼 개요

행사명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

목적

1990년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의제를 이끌 교육목표 설정

기간

2015년 5월 19일~22일

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참석대상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장관급 이상 대표, UN, WB 등 국제기구 수장,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1,500여 명

효과

한국의 우수한 교육 정책 및 교육을 통한 발전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교육 위상 제고

단일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시민성 개념에서 벗어나,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 문제의 해결,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 방안의 모색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

ESD & SDGs 인천에서 만나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

2015~2020



2- Thinking, Feeling & Acting as Global Citizen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DOMAINS OF LEARNING

COGNITIVE

글로벌 이슈들 및 세계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계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SOCIO-EMO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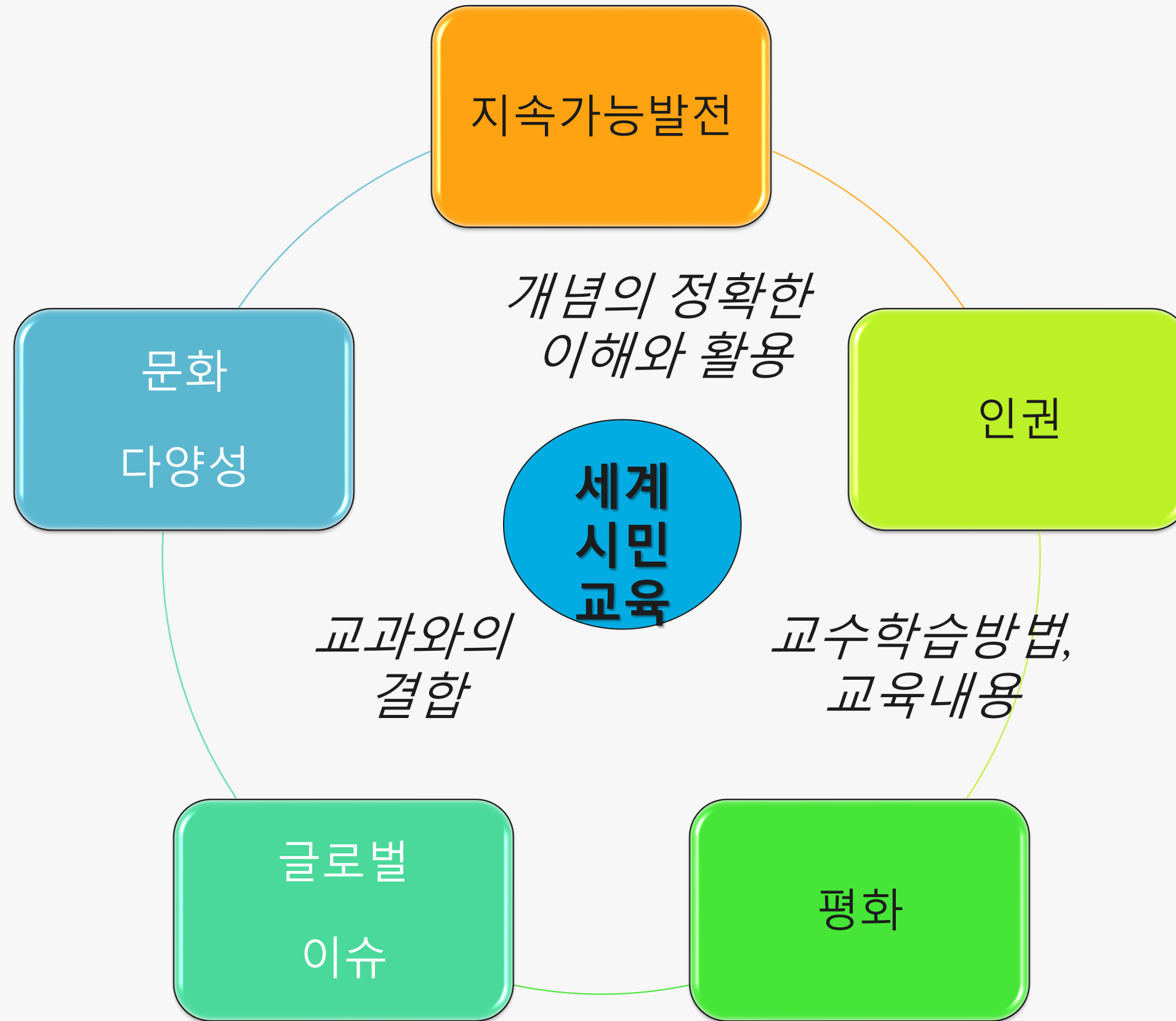
인류 공동체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의식, 공감, 가치와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

BEHAVIORAL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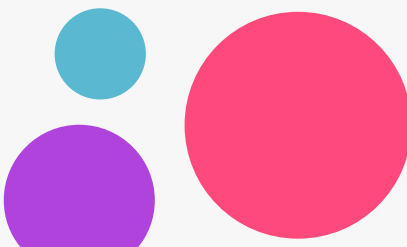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의 구성요소

By UNESCO



- 세계시민교육이 해 / 필요성 인식
- 학교맥락에 맞게 재구성, 적용
- 구체화 사례 공유 방안 마련

- 교사: 세계시민교육의 지향점, 교육내용의 적합성 판단과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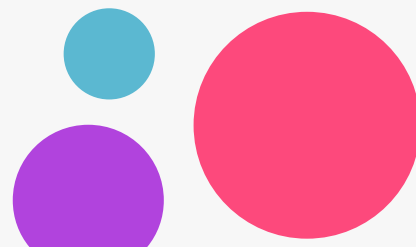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 목표 (70차 UN 총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1 빈곤 퇴치</p> 	<p>2 기아 종식</p> 	<p>3 건강과 웰빙</p> 	<p>4 양질의 교육</p> 	<p>5 성평등</p> 	<p>6 깨끗한 물과 위생</p> 
<p>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p>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p> 	<p>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p> 	<p>10 불평등 감소</p> 	<p>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p> 	<p>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p> 
<p>13 기후변화와 대응</p> 	<p>14 해양생태계 보존</p> 	<p>15 육상생태계 보호</p> 	<p>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p> 	<p>17 지구촌 협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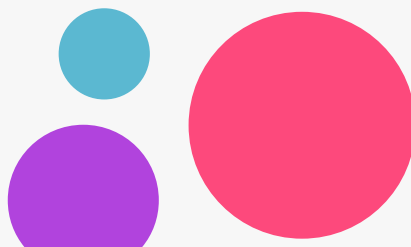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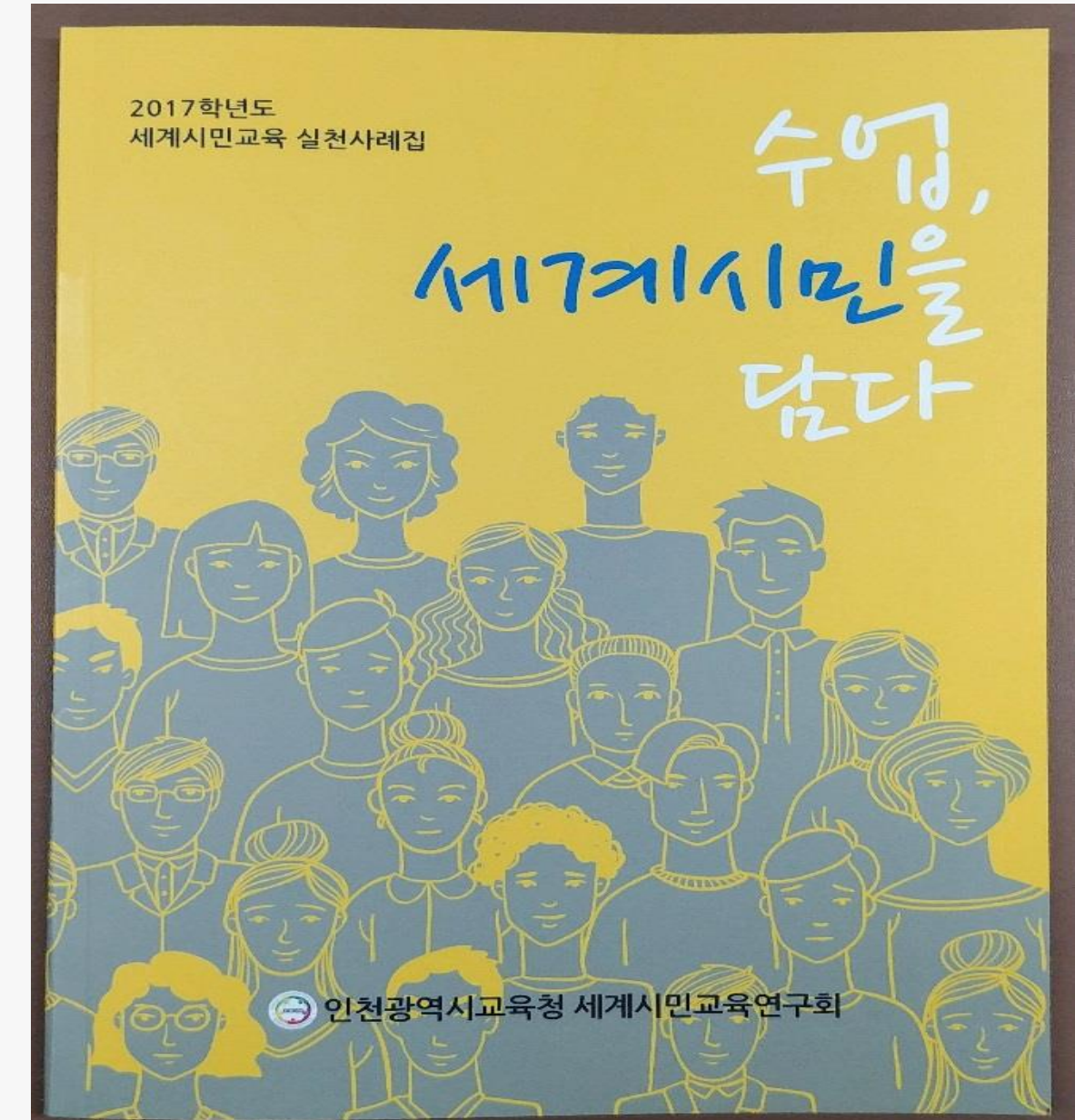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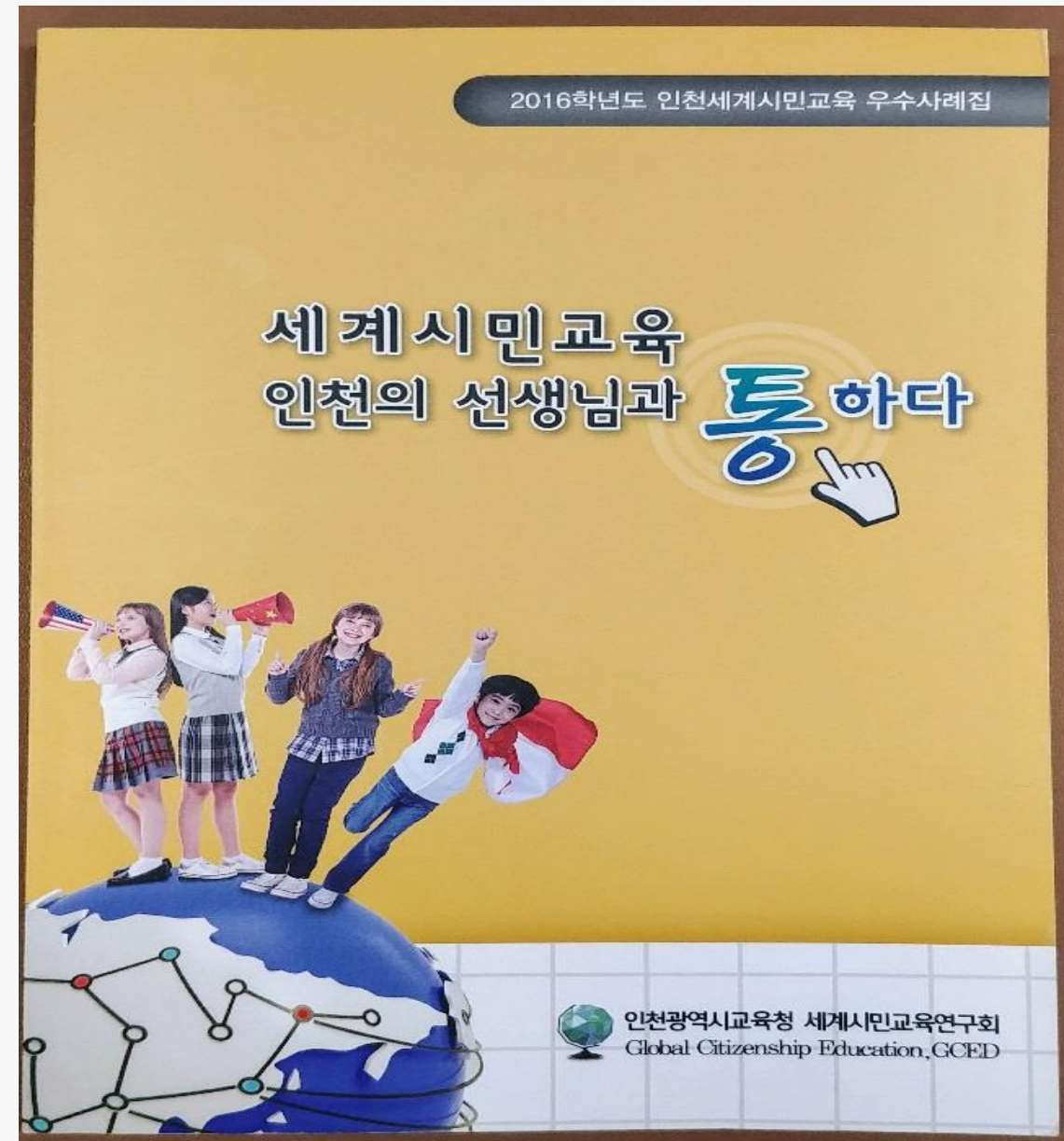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 인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인천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활동



인천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사례집 발간



ESD & SDGs & 동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역기반의 세계시민교육 (Glocalization & GCED)

동아시아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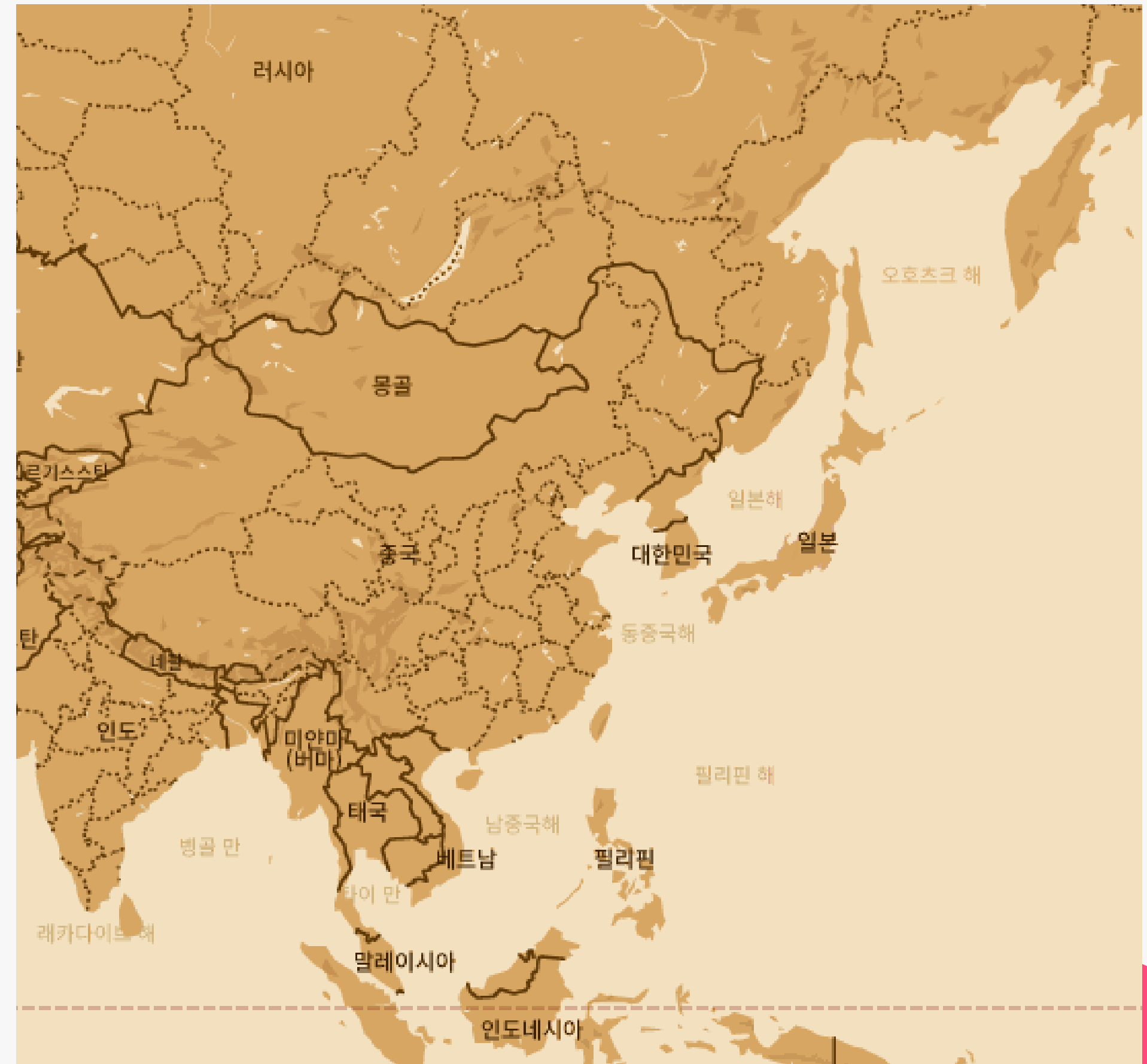
2020~2022

동아시아 공동의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를 소재로
활용하는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의 범위

- ▣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
- 지리적으로 동서는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 고원까지, 남북은 인도네시아에서 몽골 고원까지로 설정 (러시아 포함)
- 정책 추진 초기인 2020년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로 점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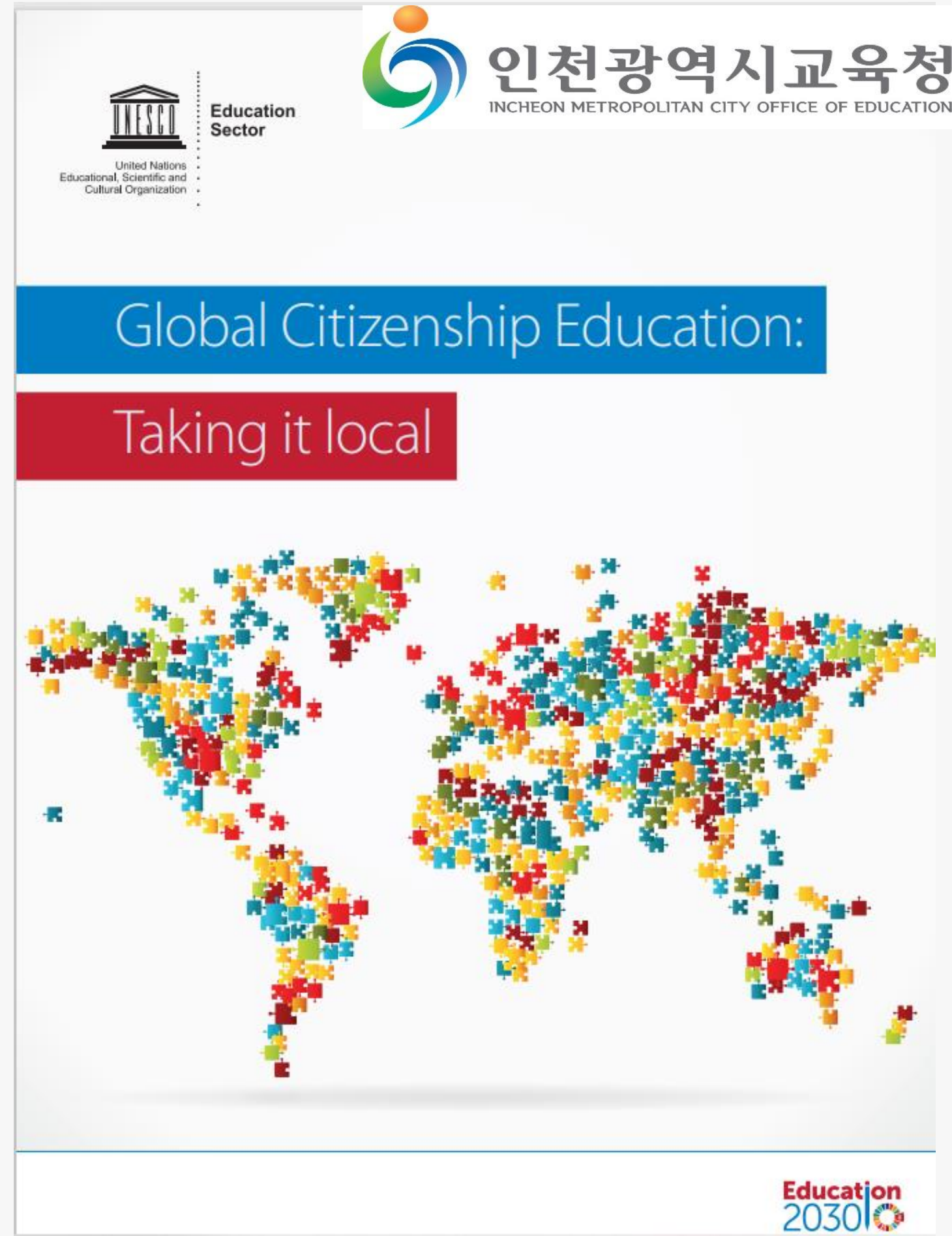


GCED: Taking It Local

지역과 상통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개념
다양성 존중, 연대, 인간성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Target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한 생활패턴,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차별 증진, 세계시민성,
문화다양성 이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모든 학습자가 습득해야 함.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예시
홍익인간, 우분투 등



Glocalization: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 (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지 문화를 반영하는 경영전략
Ex) 쇠고기 패티를 제외한 인도 맥도날드 (힌두교문화)

- 지역에서 출발하는 세계시민교육 모형의 필요성
- 교육과정 지역화 흐름에 따른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교육정책 방향
- 지역구성원과 학생이 협력하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지역기반 세계시민교육 구현
- ESD, SDGs 모두 약화됨



2021 동아시아시민교육

주요 추진 과제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1 동아시아 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동아시아의 문화, 경제, 역사 등 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 주요 관련 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정책기획과,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연계 동아시아 이해교육 실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계획 전반에 동아시아시민교육 가치 구현
2 다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동아시아 언어교육(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어 등) 주요 관련 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에 맞춘 학교별 언어 선택 및 교육 실시
3 역사·평화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동아시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평화 교육 관련 사업 주요 관련 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지역, 국가, 동아시아를 알기 위한 역사·평화 교육 강화
4 동아시아 국가 중점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동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교류 활동 주요 관련 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여건과 특색을 살린 온라인, 오프라인 국제교류 실시
5 마을·지역 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마을,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통한 동아시아시민교육 실천 사업 주요 관련 부서 : 마을교육지원단,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마을, 지역과 연계한 교육 실시
6 동아시아 전문가 양성 진로·진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동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 연관 프로그램 및 사업 주요 관련 부서 : 중등교육과, 창의인재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7 포용적인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포용적인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연관 사업 주요 관련 부서 :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용적인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심미적 소양을 함양교육 실시
8 기타 동아시아시민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시민 양성을 위한 동아시아시민교육 가치를 반영하는 모든 사업 주요 관련 부서 : 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시민교육 가치를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계획 전반의 활동

1. 동아시아시민교육 관련 기본 개념 이해하기



시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동아시아 시민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제 해결과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시민



세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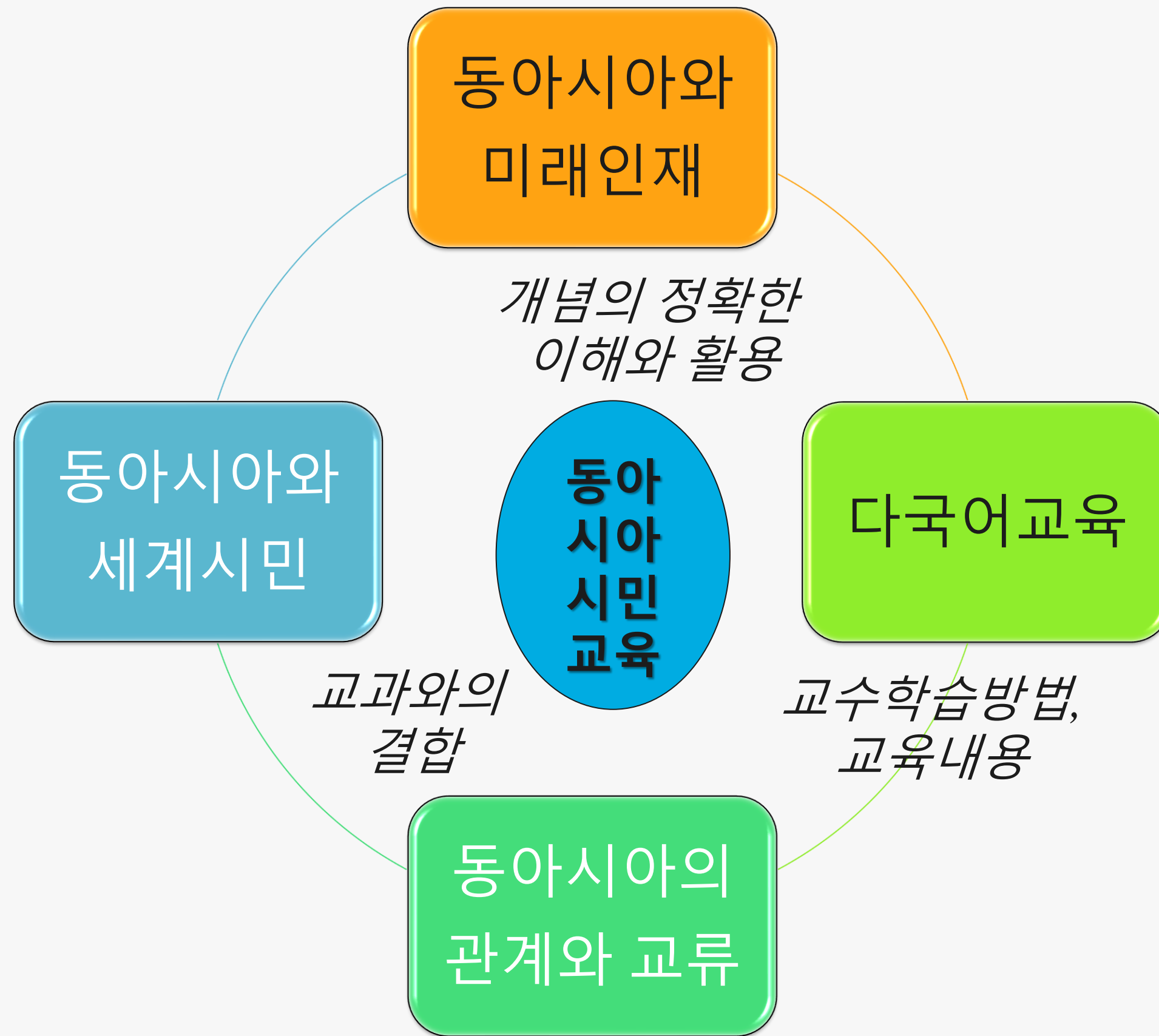
국경을 초월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토대로 인류 보편 가치 및 지구촌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협력, 존중, 책임의 자세를 보이는 시민

..... 동아시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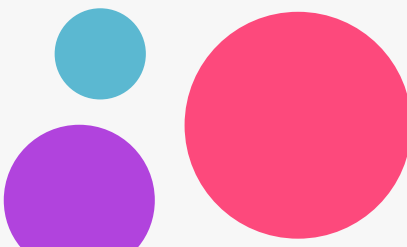




인천의 동아시아시민교육



- 동아시아시민교육 이해 / 필요성 인식
- 학교맥락에 맞게 재구성, 적용
- 구체화 사례 공유 방안 마련
- 교사: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지향점, 교육내용의 적합성 판단 과정 필요



ESD & SDGs & 인천형 GCED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역기반의 세계시민교육 (Glocalization & GCED)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2023~현재

인천의 이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SDGs 강조, ESD 분리

- ❖ **인천 속 세계를 만나, 세계 속 인천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자신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곳인 인천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
- ❖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의 삶의 주도성이 강조된 세계시민교육**(자기 삶의 결정권자로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인식)
- ❖ **마을.지역.국가.지구촌 등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세계시민교육** (인천, 세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것을 강조)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인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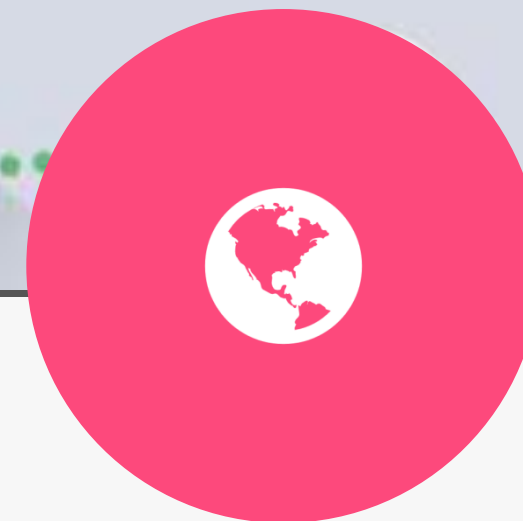
자율적인 사람

자신, 인천, 세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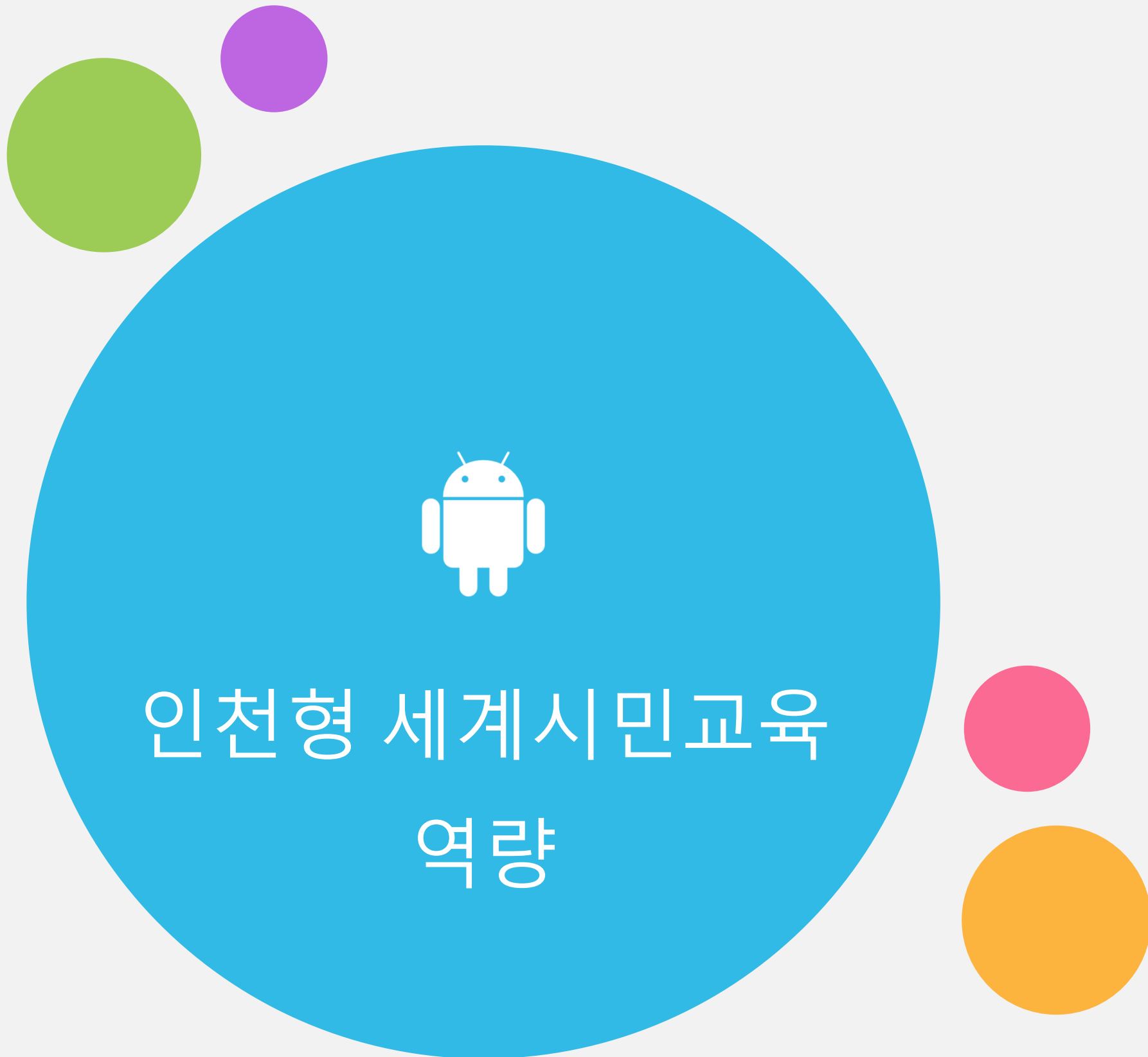
협력하는 사람

인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구성원과



실천하는 사람

인천과 세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은 세계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 자기 주도적인 시민의 협력과 참여는 인천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세계 시민은 인천의 문제를 지구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한다. 	
영역		내용 요소	
		주제	내용 요소
지식·이해	인천과 세계의 관계	인천과 나, 세계와 나	인천 시민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세계 속의 인천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특수성
		인천 속의 세계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보편성
	세계화와 지구촌 공동의 가치	세계화의 전개와 영향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세계화 속에서 지구촌이 지향하는 가치	인권, 환경, 평화, 복지, 평등, 공존 등
		세계화와 인천의 미래	세계화의 흐름과 인천의 전망
	지구촌의 현실과 문제	지구촌의 차별과 분쟁 차별 문제	차별, 불평등, 분쟁, 테러리즘 등
		지구촌의 환경 문제	자연 재해, 기후 위기 등
		인천이 직면한 지역적이면서 지구적 문제	다문화(인종, 난민 등), 불평등(빈부), 남북 관계(서해 5도 등) 등
	지속 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한 참여	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탐색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대한 성찰과 합리적 방안 모색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 지역 차원의 활용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	
인천의 문제에 대한 지구적 관점 적용		인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성찰과 실천	
과정·기능		<p>인천 속 지구촌 문제의 유형과 양상 및 원인 조사하기</p> <p>인천 속 지구촌 문제 탐구를 위해 동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p> <p>세계화의 양상과 지구촌 문제 관련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p> <p>지구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종합하기</p> <p>지구촌 문제에 대해 인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토론하기</p> <p>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천하기</p>	
가치·태도		<p>주권자로서 인천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p> <p>인천 시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고양</p> <p>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지향</p> <p>지구촌 문제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공감</p> <p>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 존중</p> <p>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참여와 실천 의지 제고</p>	

영역	내용 요소			
	주제	초	중	고
지구촌의 현실과 문제	지구촌의 차별과 분쟁 차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의 다양한 차별과 분쟁 사례 • 지구촌의 차별 및 분쟁과 나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의 다양한 차별과 분쟁의 양상 및 원인 • 지구촌의 다양한 차별과 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의 차별과 혐오의 양상과 원인 탐구 • 지구촌의 분쟁과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탐구
	지구촌의 환경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환경 문제의 사례 • 지구촌 환경 문제와 나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 문제 양상과 원인 • 지구촌 환경 문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기후 위기의 양상과 원인 탐구 • 지구촌 자연 재해의 양상과 원인 탐구
	인천이 직면한 지역적이면서 지구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사례 • 인천이 겪는 문제와 나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양상 • 인천이 경험하는 문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다문화 관련 쟁점에 대한 지구적 관점의 탐색 • 인천의 불평등(빈부) 쟁점에 대한 지구적 관점의 탐색
지식·이해	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구촌 문제의 원인 •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는 현재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성찰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갈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 탐색 •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 탐색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대응 노력 비교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나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는 인천의 노력에 대한 성찰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의 삶 속에서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갈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의 실천 •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의 실천
	인천의 문제에 대한 지구적 관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대응 노력 비교 • 인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나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이 겪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지구적 관점에서의 성찰 • 인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관점에서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천의 자원 검토 • 인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성찰과 실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비전** 및 **목표**

슬로건

인천 속 세계, 세계 속 인천을 만나 학생성공시대를 열다
Feel the world in Incheon, Lead Incheon to the world

비전

평화·공존의 지구촌을 열어갈 세계시민 양성

목표

- 지구촌 공동 문제 대응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함양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의 공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 양성
- 글로벌 학습도시 인천의 지역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구촌 인재로 성장하는 인천 학생성공시대 실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과제

<p>핵심 과제</p>	<p>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성 함양</p>	<p>지구촌과 이웃하는 글로벌 소통·협력 역량 강화</p>	<p>인천 속 세계를 만나 세계 속 인재로 성장하는 글로벌리더십 함양</p>
<p>핵심 가치</p>	<p>개방성 포용성</p>	<p>다양성 창의성</p>	<p>지역성 자기 주도성</p>
<p>핵심 역량</p>	<p>문제해결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p>	<p>다양성 존중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p>	<p>자기관리 역량 정보 활용 역량</p>
<p>중점 사업</p>	<p>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p>	<p>다국어교육 국제교류</p>	<p>인천 지역자원 연계 글로벌 진로 프로그램</p>

ESD와 SDGs 담당부서 분화

ESD = 기후생태환경교육, 자원순환교육, 학교숲교육 등

SDGs = 글로벌 이슈와 문제해결

시대적 필요에 따른 정책 추진 부서 분리

2023 인천교육계획



교육비전

학습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

인간과 AI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길러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며
인천의 해양과 육지 환경에 대한 배움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생태시민의 삶을 가꾸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인천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147개를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바닷길과 하늘길이 있고, 15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한 글로벌 허브도시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인천의 특성을 교육 자원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역량 함양,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교육정책 3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

3-1. 디지털 기반 인천미래교육

- 3-1-1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 3-1-2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설치

3-3. 인천형 생태전환교육

- 3-3-1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
- 3-3-2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 3-3-3 채식선택급식제 운영
- 3-3-4 학교텃밭 활성화
- 3-3-5 햇빛발전소 운영

3-2. AI 역량 함양 교육

- 3-2-1 AI 융합교육,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 3-2-2 AI 및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 3-2-3 소프트웨어·AI 교육지구 운영

3-4. 인천 특화 해양교육

- 3-4-1 인천형 바다학교 운영
- 3-4-2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 3-4-3 황해연안 도시 에코교육벨트 추진
- 3-4-4 인천 3대(강화, 섬, 에코) 에듀투어 실시
- 3-4-5 강화지역 해양 레저스포츠 및 체험형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교육정책 5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5-1. 외국어 역량 신장

- 5-1-1 1인 1외국어교육 확대
- 5-1-2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
- 5-1-3 섬마을 맞춤형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 실시
- 5-1-4 체험형 영어프로그램 운영

5-3.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5-3-1 지역 내 외국대학, 국제기구 연계 외국어교육 활성화
- 5-3-2 국제기구 연계 진로프로그램 운영
- 5-3-3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감 추천 전형 업무협약 체결

5-2. 세계시민 자질 함양

- 5-2-1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
- 5-2-2 학생, 교원 국제교류 활성화
- 5-2-3 세계를 품은 평화교육 허브기관 운영
- 5-2-4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 5-2-5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인권교육

교육과정 속의 생태전환교육 실천

구분	학교숲교육 실천학교	함께그린스쿨
의미	하천 숲 살리는 생태교육 강화	생태환경교육, 자원순환교육, 기후위기대응교육 실천학교
현황	30교	80교
과제	학교숲을 활용한 기후생태환경교육 실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환경교육 연계, 지역사회 연계 체험 활동, 숲체험 프로젝트 수업 운영	교육과정 속의 기후위기 및 생태환경교육 운영, 프로젝트 수업 및 동아리 운영, 자원순환 프로그램, 마을과 연계한 활동

교육과정 속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구분	교육국제화특구 네트워크 학교	인천세계시민학교
의미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추진	인천 지역자원 연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속 구현
현황	43교 (연수구 18교, 계양구 9교, 서구 16교)	61교 (초31교, 중16교, 고13교, 각종1교)
과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학교 교육과정 속 세계시민교육, 국제 문화교류, 지역사회(교육국제화 특구) 연계 활동	글로벌 이슈와 해결방안 탐색, 다국어교육, 국제교류, 인천지역자원과 글로벌 자원 연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학교 현황

2022년 교육통계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합계	529	306,493	23,831
초등학교	260	155,906	10,399
중학교	142	78,827	5,933
고등학교	127	71,760	7,499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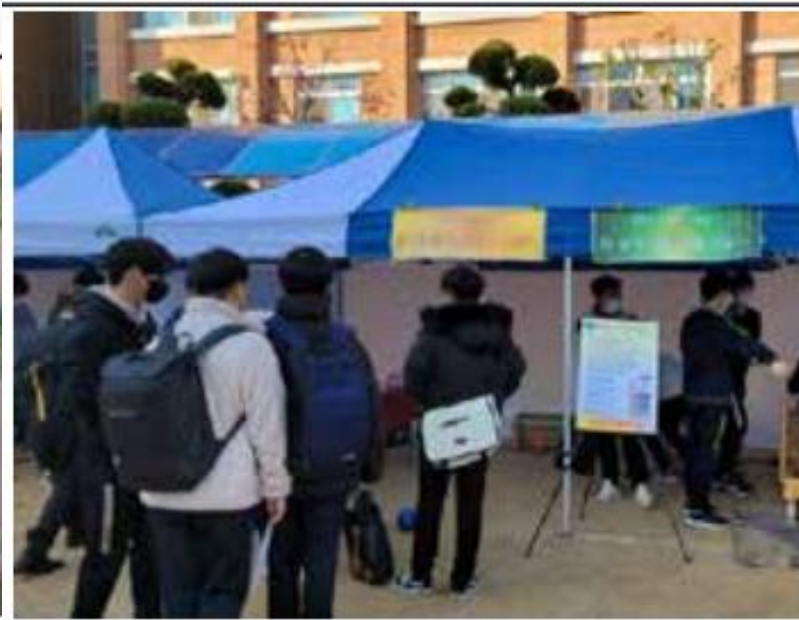
105

66

학교숲교육, 함께 그린 스쿨 일반화



일시
설명



일시 2022.11.18
설명 교내 자원순환스팀 페스티벌



일시 2022. 4. 1.
설명 학교 주변 플로깅



일시 2022. 10. 28.
설명 인천과학대제전 부스 운영



일시
설명 '숲'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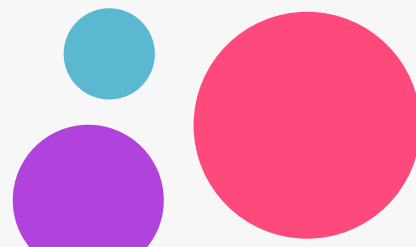
일시 2022. 9. 22
설명 부평공원 줍깅 행



일시 2022. 5. 20.
설명 학교수 특이보기



일시 2022. 10. 21.
설명 명주이끼줄 생태탄나하트



세계시민교육 성과 홍보 및 일반화

·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Incheon GCED Festival)



10월 31일 (화)

시간	주제	비고
09:45~11:30	주한 대사관 축하공연 / 1일차 오전 체험부스 운영	
11:30~13:00	점심 식사 및 오후 부스 준비	
13:00~14:00	1일차 오후 체험부스 I 운영	
13:45~14:00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사전 축하공연	우리 다문화어린이합창단
14:00~14:27	개막식, 내빈소개, 기조연설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14:27~14:50	교육감 환영사 및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	도성훈 교육감 외
14:50~16:30	1일차 오후 체험부스 II 운영	

11월 1일 (수)

시간	주제	비고
10:00~11:30	인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국제포럼	동시통역 제공
11:30~13:00	점심 식사 및 오후 부스 준비	
12:45~14:30	주한 대사관 축하공연 / 2일차 오후 체험부스 I 운영	
14:30~15:00	학생이 만드는 세계시민 공연 한마당	
15:00~16:30	2일차 오후 체험부스 II 운영	
16:30~17:00	전시 마무리	

- 세계 속의 인천 체험 구역: 세계와 연결된 인천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부스 체험 구역
- 인천 속의 세계 체험 구역: 인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에서 실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부스 체험 구역

주제	목표	세부활동	주요내용
세계 속의 인천 체험 구역 (36개)	글로벌 리더십 함양	인천 미래전략산업 체험존	인천 미래전략산업 (항공, 로봇, 첨단자동차,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반도체, 석유화학, 에듀테크, 메타버스) 관련 기업 초청 미래 신산업 체험
		글로벌캠퍼스(국내대학) 체험존	인천 글로벌캠퍼스 소재 대학 및 인천 소재 대학 초청 미래 전략 산업 체험 및 진로 상담
		인천 소재 국제기구존	인천 송도 소재 국제기구 및 글로벌 연구소 초청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전시, 홍보 및 체험, 상담
		인천아해교육 체험존	인천바로알기, 한국이민사박물관, 중구문화재단 등을 통한 인천 아해교육 우수 사례 공유 및 체험
인천 속의 세계 체험 구역 (34개)	세계 시민성 함양	인천 세계시민교육 역사존	2012년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T) 이후 2015년 세계교육포럼 이후 시작된 인천의 세계시민교육이 동아시아시민교육을 거쳐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 설명 부스
		인권·평화·국제이해교육 체험존	인권(봉사) 및 평화, 교육국제화특구 활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계시민교육 기관 체험존	세계시민교육 기관 프로그램 소개 및 관련 학교 체험체험
	글로벌 역량 함양	세계시민교육 글로벌이슈존	세계시민학교 등 글로벌 이슈 교육 학생 활동 전시, 홍보, 체험부스 운영
		외국문화 체험존	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참가국 문화 체험
		다국어 체험존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다국어교육 관련 우수 사례 공유 및 체험
국제교류활동 체험존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생 국제교류 관련 우수 사례 공유 및 체험		

※ 세부 운영 내용은 예정 사항으로 행사 준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초청 '인천세계시민교육 전문가 국제포럼'

- (주제) 지역 기반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나아갈 방향
- (좌장) 정우탁, 경희대 교수 & 前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장
- (참석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Ganbold Baasanjav, UN ESCAP 동북아사무소 대표

Robert Matz,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

Bapon Fakhruddin, GCF Senior Specialist

이장익,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 인천시민대학 세계시민캠퍼스 책임교수

○ 참관 인원 : 300명 내외

○ 참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또는 공문 시행

○ 기타 : 동시통역 제공

6 주한 외국대사관 및 다문화 합창단 초청 공연

- 주한 외국대사관 문화 공연 및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초청 공연
- (장소) 행사장 메인 무대 (무대 옆 공연 대기실 지원 예정)

날짜	시간	주관	내용
10.31.(화)	09:45~10:00	주한 몽골대사관	마두금 연주, 몽골 전통음악 호미 공연 등
	13:45~14:00	우리 다문화어린이합창단	Over the Rainbow 등 합창 공연
11.1.(수)	12:45~13:00	주한 인도대사관	고전무용 까탁, 오디시 등 공연

7 인천세계시민교육 시민광장

- Incheon GCED Wall 운영 : 참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 행사 피드백, 4행시 짓기
- 한마당 만족도 조사 및 기념품 수령
- Incheon GCED 포토존 운영, 세계시민 네컷찍기 부스 활동
- 그 외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가 가능한 다양한 행사 기획 예정(SNS 한마당 사진 업로드 인증 행사 등)

세계시민교육 및 외국어교육 협력기관

· (협력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 국제협력방안 연구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
- 다국어 교육 지원



IEGI | Incheon East Asia
Global Education Institute



gcedclearinghouse.org 클리어링하우스

gcedclearinghouse.org/resources

English العربية 中文 Français Русский Español 한국어

로그인

UNESCO.org

APCEIU.org

UNESCO CLEARINGHOUS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OSTED BY APCEIU



소개

자료

이벤트

뉴스

관련 링크

연락처

자료

둘러보기

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옵션 열기

지역 / 국가별 검색

아프리카

아랍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 및 북미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전 세계 대상

자료 타입별 검색

애드보카시

시청각자료

사례연구 및 연구논문

컨퍼런스 및 회의자료



제22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미래형 교육과정과 세계시민교육: 도전과 과제

출판지역 | 출판년도 | 페이지 : [서울] | [2021] | 217 p.

단체 저자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지역 : 아시아 태평양 지역



Resilience Against Anti-Democratic Tendencies through Education: Competences for Democrati...

출판지역 | 출판년도 | 페이지 : Strasbourg | 2021 | 49 p.

단체 저자 : Council of Europe

지역 : 유럽 및 북미



Advocacy for Impact: Gender and Education

출판지역 | 출판년도 | 페이지 : [New York] | 2022 | 45 p.

단체 저자 : UN Girls' Education Initiative (UNGEI)

지역 : 전 세계 대상

동아시아시민 교재 및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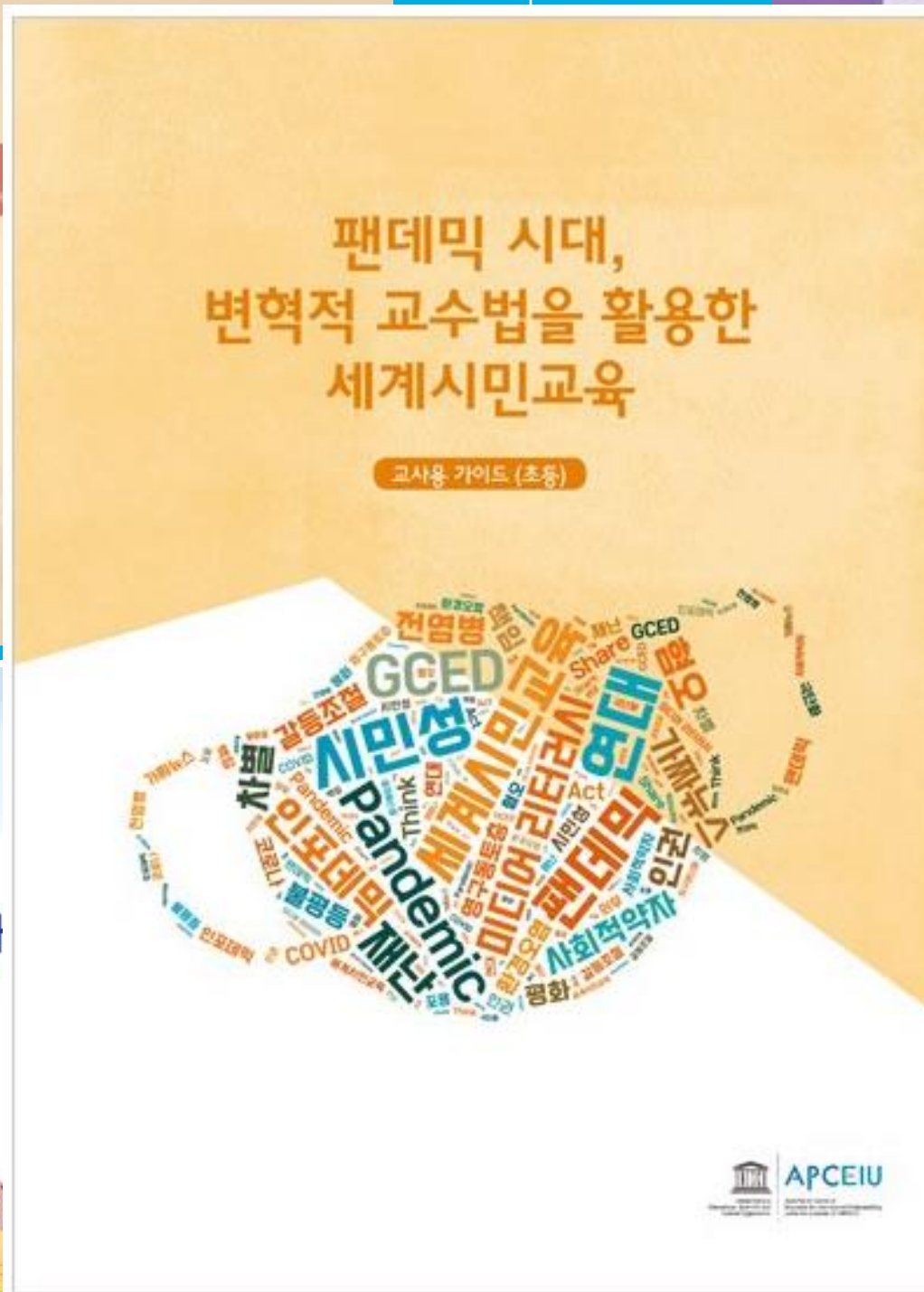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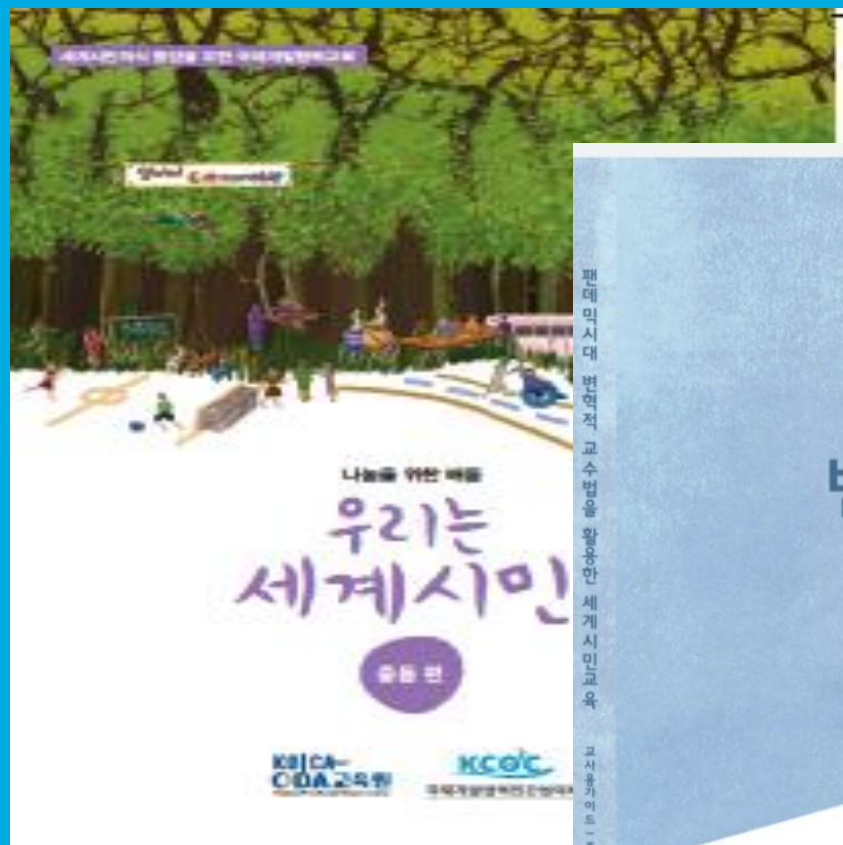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총 6권 : 학생용 교재 3권, 교사용 지도서 3권
- 초등학교 5~6학년용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 중학교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 고등학교 학생용 교과서(인정도서) 및 교사용 지도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자료



cyberjinro.ice.go.kr '인천바로알기' 자료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https://cyberjinro.ice.go.kr/community/community?menuId=20220921100003573032

인천바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진로AI적성검사 사이버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 신청·접수 **커뮤니티** 열린공간 사이버진로교육원

커뮤니티 커뮤니티&소모임

나의 활동 소모임 신청하기

즐거찾기 소모임

커뮤니티 소모임

인천바로알기

- 인천바로알기란?
- 코스 안내
- 인천을 품고 세계로 1,2,3
- 인천바로알기 영상자료
 - 인천길탐방
 - 인천 섬
 - 방송매체 방영
- 교육과정연계 공모학급
- 공지사항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이력관리 진로관련 예시문

인기 게시물

일반고 2023 고입 파노라마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에서 제작한 2023 고입 파노라마 자료집입니다.
#고입지원

진로활동 후기 진로전공별 도서 추천 목록
광덕고 안병선선생님께서 개발해주신 진로 도서 목록입니다.

공지사항 인천 고교학점제 꿀독 Tip
(화면 클릭)인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영상입니다. (2022...
#인천 고교학점제 꿀독 Tip

전체 글보기

'서해5도에 풍당'영상 활용가이드(중등) [0]	charlotte	2023-02-07
'서해5도에 풍당'영상 활용가이드(초등) [0]	charlotte	2023-02-07
서해5도란? 서해5도에 풍당 웹포스터 [0]	charlotte	2023-02-07
'서해5도에 풍당'[소청도편] [0]	charlotte	2023-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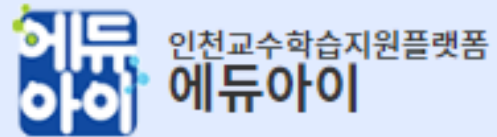
인천교육플랫폼 다국어 교육과정

edu-p.ice.go.kr/index.do?sso=ok

인천교육플랫폼을 시작페이지로 ▶ 로그인 |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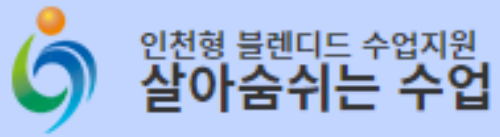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에듀아이 수업마켓

교육지원청 마을교육

자료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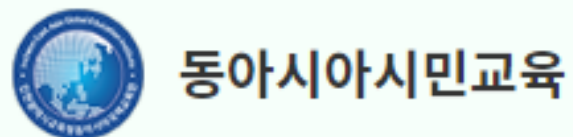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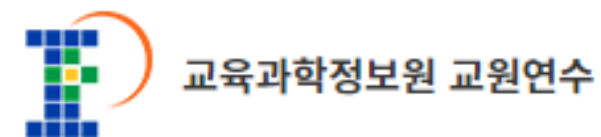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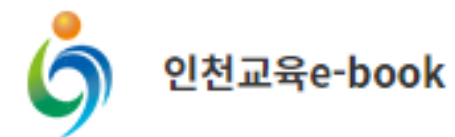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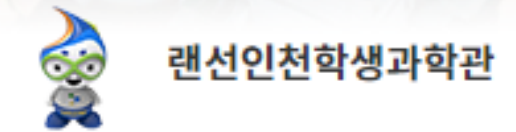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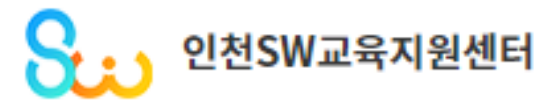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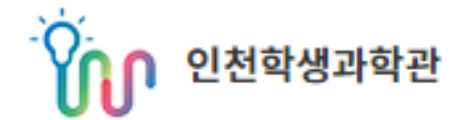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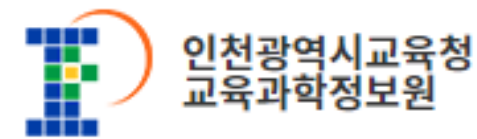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아·특수



▶ 다국어 교육과정

▶ 초급 다국어 수업 동영상

▶ 중급 다국어 수업 동영상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google.com)

<https://sites.google.com/gclass.ice.go.kr/for-earth/>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https://sites.google.com/gclass.ice.go.kr/for-earth/>

"지구를 위한 삶, 오늘부터"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와 함께해요!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YouTube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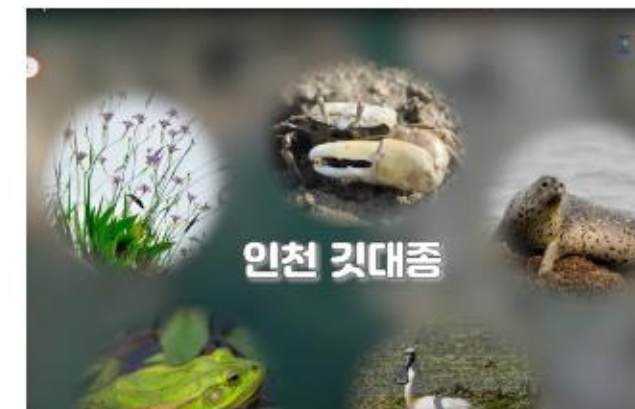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홈 ▾ 지능형과학실 교사연수 ▾ 웹진을 소개합니다 ▾ 교사 참여 프로그램 ▾ 학생 참여 프로그램 ▾ 자료실 ▾ 문의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과학교육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과학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삶**에 대한 **학습**과 **실천**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인천교육플랫폼-ebook

(<https://edubook.ice.go.kr/home/list.php?code=3012>)

https://edubook.ice.go.kr/home/list.php?dummy=&searchcode=&searchkey=all&searchval=%C8%AF%B0%E6&x=0&y=0



검색분류(636) ▼

환경

검색

전체보기

장학자료

교육자료

교육연구

연수자료

교육소식

교육행정

검색결과

책이름/태그 검색 (16건)



2022 초등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자료집 (지구촌 협력 강화)

분류명 : 초등
등록일 : 2023/02/08
페이지:76, 방문:19, 만족도:100점



2022 초등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자료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분류명 : 초등
등록일 : 2023/02/08
페이지:82, 방문:7, 만족도:100점



2022 초등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자료집 (생물 다양성)

분류명 : 초등
등록일 : 2023/02/08
페이지:74, 방문:6, 만족도:100점



2022 초등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자료집 (기후 변화와 대응)

분류명 : 초등
등록일 : 2023/02/08
페이지:64, 방문:4, 만족도:100점



2022 초등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자료집 (생태 소양과 시스템사고 게임)

분류명 : 초등
등록일 : 2023/02/08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AI융합교육과, 지원청)

I-1-4 자유학년 기후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II - 3 생태전환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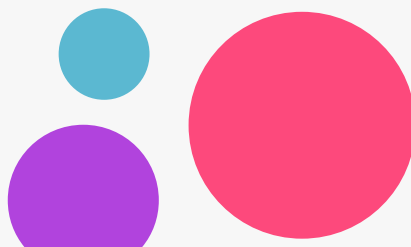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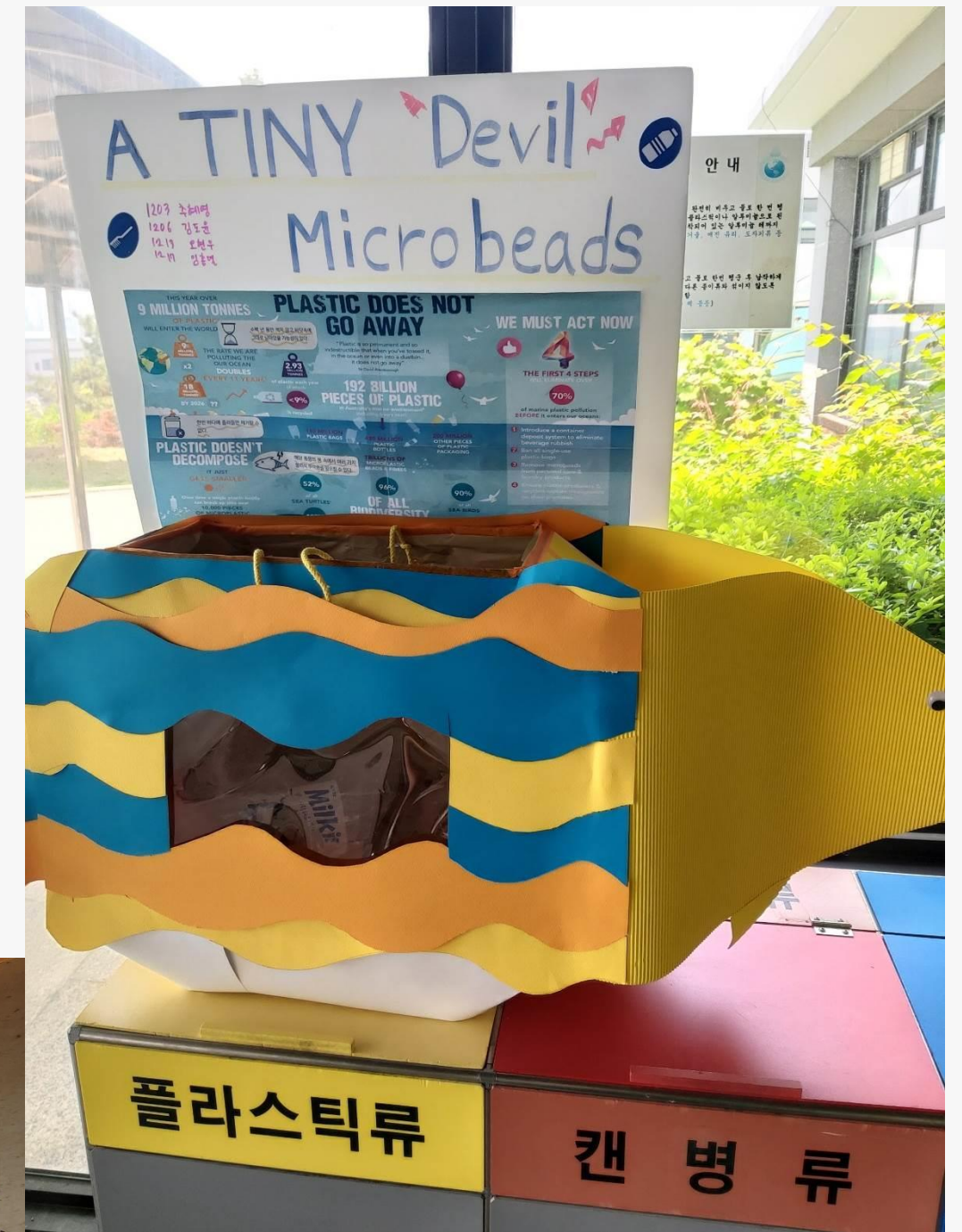
I-1-5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III-1-1 인천형 바다학교 프로그램 개발

- 기후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 90교 운영, 지원
-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교 15교 운영, 지원
- 학교숲교육 실천학교 30교 운영, 지원
- 생태치유프로그램 3교 운영, 지원
- 에코스마트팜 실천학교 16교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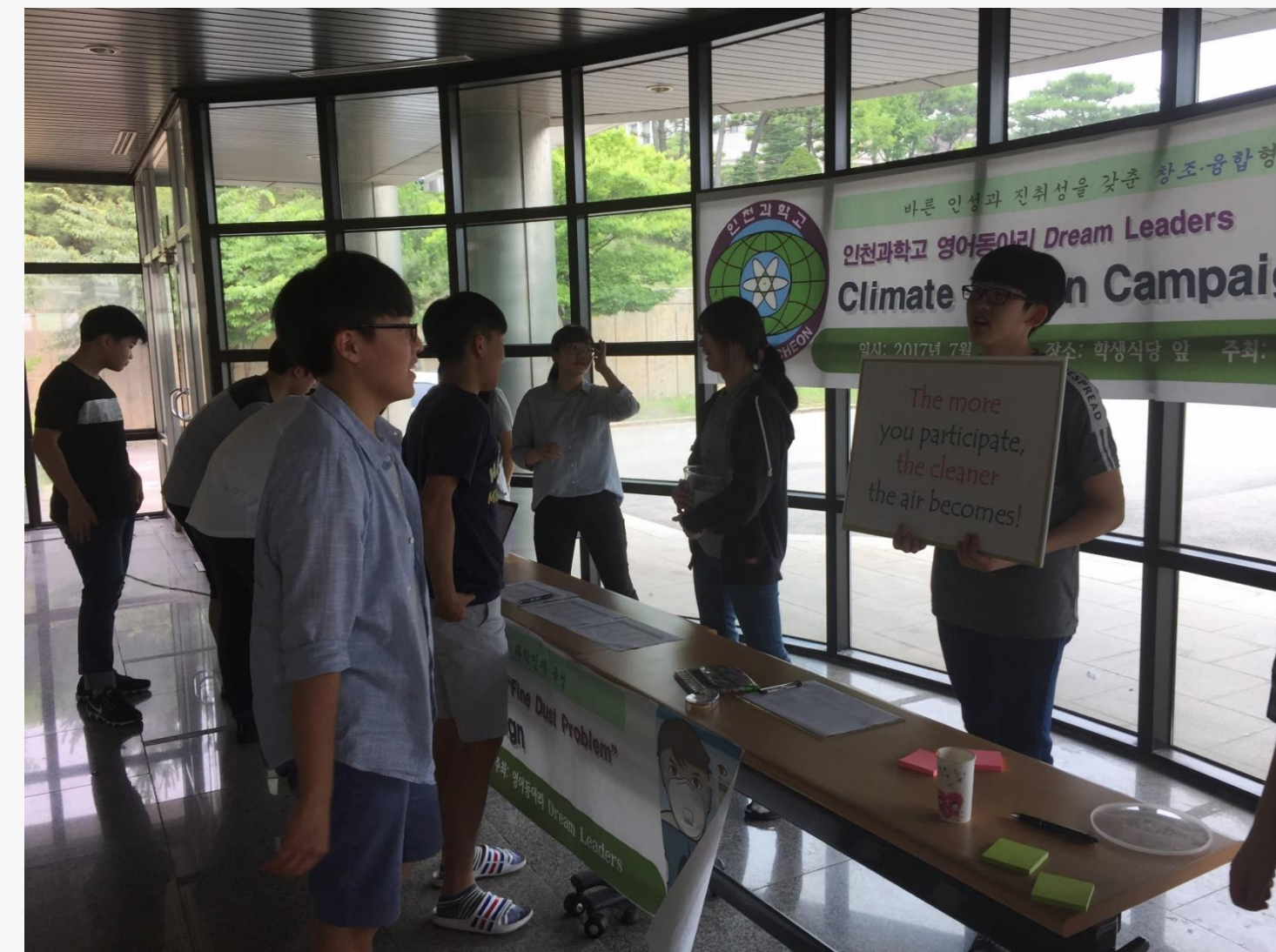
교과내 또는 동아리 활동 예시

글로벌 이슈



미세먼지 대책마련 캠페인 활동

지속가능
발전



<https://www.change.org/p/chinese-government-save-yeongjong-island-from-fine-dust-pollution-c027348a-4d25-4247-9fb5-e81ee94118e4>



Petitioning Chinese Government

Save Yeongjong Island from Fine Dust Pollution!


 재형 박 South Korea

Fig. 1

번호	지역	구역	항목	경보단계	발령시간	해제시간
8	인천	영종권역	PM _{2.5}	주의보	2017-05-06 04	2017-05-09 18
7	인천	영종권역	PM _{2.5}	주의보	2017-05-06 17	2017-05-06 18
6	인천	영종권역	PM _{2.5}	경보	2017-05-06 02	2017-05-06 17
5	인천	영종권역	PM _{2.5}	주의보	2017-05-06 01	2017-05-06 02
4	인천	영종권역	PM _{2.5}	주의보	2017-04-20 16	2017-04-20 17
3	인천	영종권역	PM _{2.5}	주의보	2017-04-19 06	2017-04-19 15
2	인천	영종권역	PM _{2.5}	주의보	2017-03-20 14	2017-03-21 06
1	인천	영종권역	PM _{2.5}	주의보	2017-03-20 13	2017-03-21 06


Fig. 2

번호	지역	구역	항목	경보단계	발령시간	해제시간
3	서울	서울권역	PM _{2.5}	주의보	2017-05-08 11	2017-05-09 18
2	서울	서울권역	PM _{2.5}	주의보	2017-05-06 01	2017-05-06 22
1	서울	서울권역	PM _{2.5}	주의보	2017-03-20 21	2017-03-21 11

Share this petition

85 supporters



 Share on Facebook

Add a personal message (optional)



Chinese Government: Save Yeongjong Island from Fine Dust...



질의응답

Thank You for Listening!

Any More Questions?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최윤경 (☎420-8237)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이은정(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기후 위기, 빈곤, 불평등, 질병 등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중요한 교육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중등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21년 9월에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에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이 신설되었고, 2022년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만이 아니라 전체 교과에서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교육’을 내용 요소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후변화환경 교육, 인간 중심이 아닌 생태 중심의 환경교육,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0~2024)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2023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다. 2023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생태전환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추진 전략 5가지는 ‘배우고, 느끼고, 행하고, 나누고, 말하고’이다. 그 중 ‘배우고’ 단계에서 ‘기후변화 결과, 환경문제 원인 등을 SDGs와 연계하여 배우기’라고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를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세 개의 축 중 환경보존 관련 목표와의 연계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13번), 해양 생태계 보전(14번), 육상 생태계 보전(15번)은 생태전환교육의 내용으로 직접적 연관성을 보인다.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12번), 물과 위생(6번)도 생태전환교육 내용 영역으로 다룰 수 있다.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생태전환교육의 내용과 연계될지 다소 모호해질 수 있으나 깨끗한 에너지(7번)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교육으로 연결되고,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9번)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과 사회기반시설로의 전환과 연결되어 경제성장 영역을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태전환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중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체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도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수현 장학사의 발제 내용을 보면 생태전환교육이 시작된 배경,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학교문화조성,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기후위기,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실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4년 차에 접어든 생태전환교육이 활성화,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2023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교원 대상 설문 조사 실시 결과(2022.11.)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교원 전문성 강화 요청, 학교 내 탄소중립 지원, 다양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태전환교육 실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에서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지속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생태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실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의 생태전환교육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선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생태전환교육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기관 간 협력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생태전환교육의 질적 제고 도모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생태전환교육의 실행 확대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보다 확장된 생태전환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원의 실행 역량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역량 강화를 통해 실행 가능성 및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전환교육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생태전환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지원이 필요하다. 생태전환교육 자료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포털 정비, 초·중등학교 생태전환교육 사례 개발 및 보급, 생태전환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을 통한 생태전환교육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방용환 교수입니다. 이번 2023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 참여하고 특히 지속가능발전교육(ESD)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교육 세션에 토론자로 참가할수 있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 발제를 진행해주셨던 세 분의 발제내용과 개인적인 소견으로 토론 세션에서 제가 맡은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임재일 소장님께서 ESD, SDGs의 개념과 교육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두 언어를 혼용할 정도로 “지속과잉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장의 단면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ESD, SDGs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전은 경제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을 아우르며 자연, 환경과 생태등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현장은 심도 깊고 포괄적인 사고관의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가르침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매우 거시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단면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읽을 뿐만 아니라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시각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합니다. AI, Chat GPT 등의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역동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고민할 수 있는 힘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

가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스스로 던져보며 Post-SDGs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관계는 더 이상 수직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도 스스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사고해 나갈 세대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좋은 사례를 두 장학사님께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정수현 장학사님의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생태전환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 삶의 전환을 주도하는 ‘생태시민’이 되어 먼저 배우고 실천할 수 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사회로까지 확장하여 지식을 넘어 실천을 통한 사회발전을 이루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윤경 장학사님의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은 인천 속에서 세계를 만나며 지역기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실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 교육 플랫폼과 기획위기 대응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대에 맞춰선 플랫폼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이 실천되는 현장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으로, 교육개발협력분야에서 EFA와 MDG 그리고 SDG를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주도해오고 있는 Global Agenda가 Post SDGs 시대에서는 어떠한 Agenda로 제안되고 실행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약간 벗어난 의견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교육분야가 좀 더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적이고 Agenda 세팅을 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더 나아가서는 개별 교사들 모두가 교육분야의 Global

agenda 세팅에 의견을 개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김진욱입니다.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교육 세션에 토론자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는 국제교육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ESD, SDGs 개념의 발현과 보편적 개념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 및 학교교육 구현에 앞선 과제들을 임재일 소장님 설명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 최윤경 장학사님이 설명하신 글로벌라이제이션 중심의 인천시 교육청의 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동아시아시민 교과서 개발 등의 내용 또한 공교육에서 실천하고 계신 일선의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의 정수현 장학사님께서 설명하신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의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 정책 또한 동일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 교육이 학교교육과 아이들의 삶에서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오늘날 기성세대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류의 선언적 주장에 넘어 실천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형적 정당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필요성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피교육자에 앞서 교육자가, 자녀들에 앞서 부모가, 신세대에 앞서 기성세대가 경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여전히 해온 방식, 처방적 교육정책, 처방적 교육과정을 강제하는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저희 전남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교원대상 연수와 학생 대상 프로그램 일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개의 교육청 단위 사업과 유사합니다. 세계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전남선도교사 직무연수, 세계시민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인식 함양과 실천 역량을 북돋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2박3일 중등 세계시민 영어캠프, 중등 세계시민 리더십 캠프, 도내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봉사 프로젝트, 한일 청소년 세계시민 리더십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활발하게 진행중인 한일청소년 세계시민 리더십 프로젝트 내용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지역의 현안과 현실을 직면하고 공유하는 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은 교육과정 상의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모두 다룰 수 없지만 사고 방식과 공유 방식을 통해 배움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돕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한국 10개교 26명의 학생들과 일본 1개교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22년에는 한국 26개교 46명의 학생들과 일본 3개교 26명의 학생들로 참여 범위를 점차 늘렸으며, 올해 2023년에는 한국 20개교 20명의 학생들과 일본 8개교 5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시면 올해 6월부터 원격 교류를 시작으로 12월 4박5일 일정의 대면 프로그램까지 11차례에 걸쳐 Global Citizen의 개념, 동물복지, 빈곤, 불평등과 정의, 상호 프로젝트 실행까지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정에 좋은 내용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누구도 학교 현장을 긍정하지 못합니다. 백화점식 나열, 중앙의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모두가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를 가능케하는 교육이 또 다시 선언적, 처방적 명제에 머무르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와 같은 귀한 시간이 보다 활발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